



현대조선력사

고급 2

학우서방

차 례

제3편) 새로운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과 남조선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1953.8－1960)

1. 조선에서 계속되는 전쟁위험	5
2.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	9
1) 전후복구건설	9
2) 사회주의기초건설	14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24
3. 민주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27
1) 미국의 《경제원조》와 독재정치	27
2) 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	31
4. 조선전쟁후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	37
1) 조선전쟁후 일본의 형편과 재일동포들의 처지	37
2)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의 결성	39
3) 민족교육과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발전	42

제4편) 외세의 압력과 재침책동을 물리치고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투쟁(1961－1969)

1. 국제무대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조선반도	52
2.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	56
1)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56
2) 자주로선견지	62
3)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	67
3. 군사독재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70
1) 군사독재《정권》과 《한일회담》	70
2) 《한일회담》과 장기집권반대투쟁	78
4. 1960년대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	84
1) 1960년대 일본의 형편과 재일동포들의 처지	84
2) 《한일회담》반대투쟁	86
3)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88

제 3 편

새로운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 과 남조선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1953.8~1960)

① 조선에서 계속되는 전쟁위험

제 5 편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고 공화국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유신》독 재를 반대하는 투쟁(1970~1980)
1. 국제적인 《긴장완화》와 조선반도	95
2.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	99
1) 혁명위업 계승	99
2) 3대혁명 적극 추진	105
3)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	115
4) 조국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120
3.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25
1) 《유신》독재와 《중화학공업화》	125
2) 《유신》독재반대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130
4. 1970년대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	136
1) 1970년대 일본의 형편과 재일동포들의 처지	136
2) 애국애족운동의 계승	138
3)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확대와 조국통일운동	143
색인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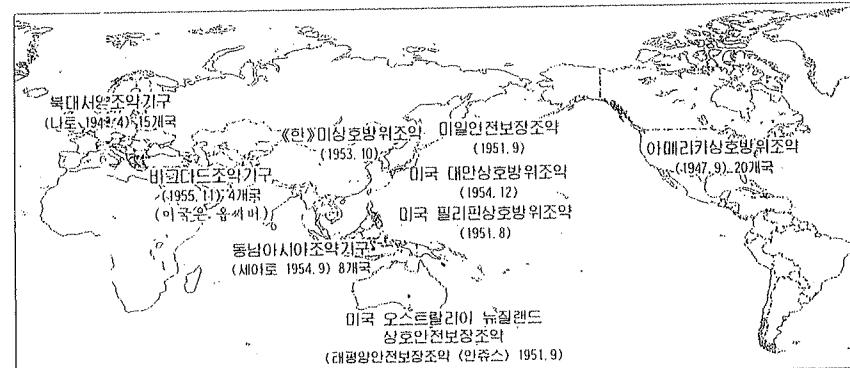
전후 국제정세의 변화 조선전쟁이후 미국은 안팎으로 겪게 된 불리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1953년 12월 『^新新政策』(『뉴욕크정책』)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와 민족해방력량에 대한 『大量報復戰略』을 내놓았다.

미국은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水素爆彈을 기본으로 핵무기생산을 다그쳤으며 소련과 중국의 주변에 군사밸력을 형성하고



미국의 수소폭탄실험



세계에 형성된 군사밸력



반동회의

반동회의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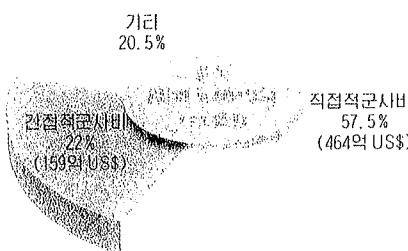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국제회의. ① 반제, 반식민지, ② 평화공존, ③ 아시아, 아프리카의 현대성 강화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평화10원칙》이 제시되었다.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1954년 4월 제네바회의를 계기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아시아의 평화와 핵무기의 사용금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였다.

* 新興勢力나라 인민들은 반동회의(1955. 4)와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인민단결대회(1957. 12)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결과 현대성을 강화해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식민지로 남아있던 라오스, 수단 등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웨남, 알제리, 꾸바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외래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을 반대하는



미국의 군사비비율의 내실

*신흥세력나라 :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전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을 말한다.

와르샤와조약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처하여 유럽의 평화와 안전,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와르샤와에서 창설된 군사정치동맹이다.

여기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망라되어 있었으며 본부는 모스크바에 있었다. 1991년에 해산되었다.

무장투쟁이 힘 있게 벌어졌다.

한편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졌으며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은 1955년 5월 와르샤와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압력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섰다.

195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세력과 사회주의, 민족해방력량사이의 동서냉전은 더욱 격화되었다.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

전후 정전협정에 따라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의 완전한 평화

적해결을 이루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었으며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요구였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을 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폭하게 위반하면서 1953년 10월 1일 《韓米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고 1954년 11월 17일에는 《韓米合意議事錄》을 만들어 내여 미군의 남조선永久駐屯과 반공군사기지로 만드는 길을 열어놓았다.

정전협정 제4조 60항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군사령관은 쌍방의 각국 정부에 정전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모든 문제들을 합의할것을 이에 전의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

《한미상호방위조약》(6개 조항)은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합법화》한 조약. 제4조에는 《미군의 육해군과 공군을 남조선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남조선은 허가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6조에는 《본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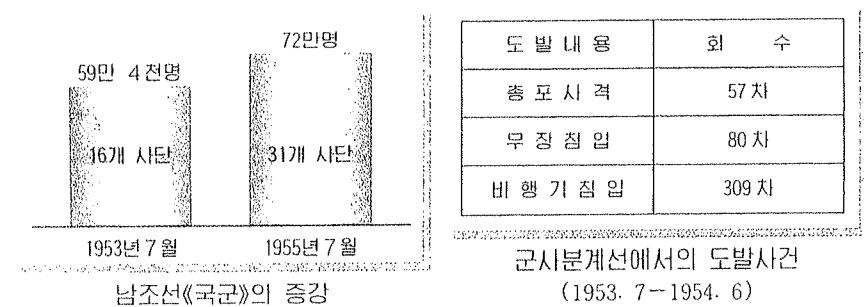
《한미합의의사록》은 남조선《국군》의 《통수권》, 《관할권》의 유지 강화,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대시킬것을 규정하였다.

미국은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열린 정치회의를 위한 예비회담을 여러 구실을 내세워 파탄시켰을뿐아니라 1954년 6월 15일에는 제네바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평화적조정을 파탄시켰다. 또한 1953년 8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자 그것을 방해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1957년 7월에는 도쿄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새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이와 함께 무기반입을 금지할 데 대한 정전협정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1957년에 核武器搬入을 시작하였으며 남조선《국군》을 확대 강화하고 리승만을 부추겨 각종 도발사건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었다.

정전후 조선인민앞에는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섰다.



*《유엔군사령부》: 서울에 있는 미8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였으며 《유엔군사령부》는 실제로 있어서 주《한》미군사령부였다.

제네바회의

회의에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 웨남, 라오스, 캄보쟈에서의 정전 및 평화회복 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문제토의에서는 미국이 공화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주장함으로써 파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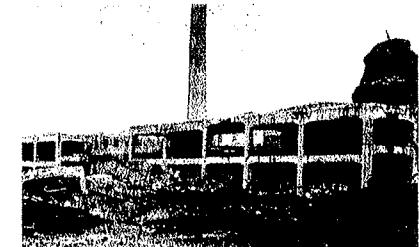
2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

1) 전후복구건설

공화국이 나아갈 길

전쟁 3년동안에 미국은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교육, 문화시설들을 무참히 파괴하고 온 나라를 재더미로 만들었다. 이러한 형편을 놓고 미국은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다.》고 하였으며 공화국을 동정하는 벗들도 우려를 표시하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15개국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승리한 켜다란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파괴된 평양방직공장

전쟁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한층 두터워졌으며 계급진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42(1953)년 7월 28일 전쟁승

1953년도분

전력	26%
연료	11%
야금	10%
화학	22%
건재	36%
공업총생산	64%



파괴된 황해제철소

생산의 감소률(1949년과 대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53. 8. 5)

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있는 그날로 강남벽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7월 29일에는 평양방직공장과 황해제철소를, 8월 3일에는 강선제강소와 남포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 로동자, 기술자들과 복구건설의 방도를 의논하시였다.

그 과정에 전쟁시기 구상하여오신 전후복구건설의 방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고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정전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어진 조건에서 정전의 승리를 공고히 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할데 대한 기본립장을 밝히였다.

그리고 정전의 평화적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제시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하며 동시에 전쟁시기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게 하는 로선이였다.

전원회의에서 복구건설단계도 제시됨으로써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첫째 단계

복구건설준비
(반년 ~ 1년)

1953. 8. 5 ~ 1954. 2. 28

둘째 단계

전쟁전수준 회복
(3개년계획)

1954. 3. 1 ~ 1956. 2. 28

셋째 단계

사회주의기초건설
(5개년계획)

1956. 3. 1 ~ 1960. 2. 28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의 3단계

전후복구건설 을 위한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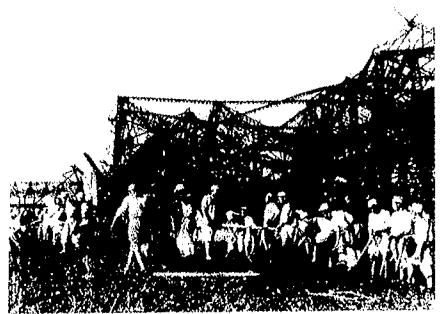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이후 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열의는 매우 높았다.

또한 공화국에는 경애하는 주석님의領導밑에 광복후 파괴된 경제를 농구한 경험, 비록 파괴는 되었지만 강철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의 토대, 풍부한 자원과 기술인재들이 있었다.

형제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원조도 공화국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문제는 모든 가능성은 최대한 동원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속에서 ^{*}自力更生의 혁명정신을 발양시키는데 있었다.

*자력갱생 :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은 자기 인민의 힘과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강선제강소 복구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

이로부터 공화국정부는 내부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국가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체 인민들에게 복구건설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호소를 받들고 1953년 8월 전국전투영웅대회에서 류경수군부대산하 전체 영웅들은 資金獻納運動을 발기하였으며 강선제강소의 로동계급은 전후 40일 만에 용광로를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았다. 농민들은 파괴된 농경지와 관개시설들을 복구정비하여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준비를 끝낸 공화국인민들은 1954년부터 3개년인민경제계획(1954-1956)수행에 들어서게 되었다.

3개년인민경제계획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발전시키고

정전후에 일어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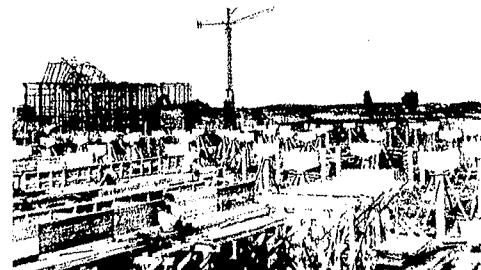
- 4달사이에 년산 1억 장의 생산능력을 가진 강남벽돌공장 복구조업
- 정전후 1주일안으로 중요간선들의 복구를 끝내고 철도수송 보장
- 평양방직공장에서 2달사이에 1만 3,000주의 精紡機, 250대의 織布機를 복구설치 하여 생산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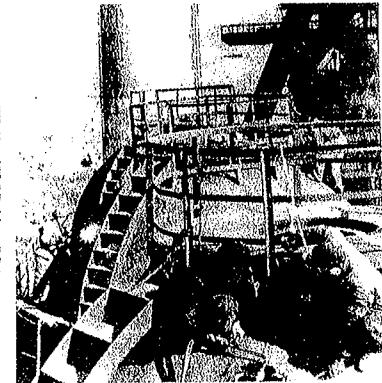
평양시복구건설에 나선 노동자들

자금헌납운동

류경수군부대산하 전체 영웅들이 累積年俸金을 빙자 않고 국가에 바칠 것을 호소한 것이 계기가 되어 황해제철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전시휴가금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에 호소하여 이 운동은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복구건설에 나선 평양방직공장 노동자들



평로복구에 떨쳐나선
황철의 노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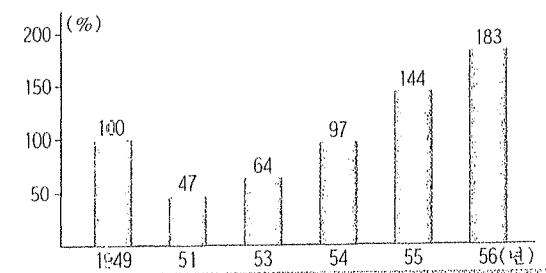
공업총생산액을 1949년에 비하여 1.5배로 높이며 알곡생산은 약 1.2배에 이르게 할 것을 예견하였다.

3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전국건축가 및 건설기술자대회(1954. 3), 중공업부문 전국열성자회의(1954. 5)를 비롯한 부문별회의들이 열리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인 투쟁이 힘 있게 벌어졌다.

추상수를 비롯한 황철의 로동계급은 전쟁시기 파괴된 것보다 2배나 더 큰 1호平爐를 한해도 못되는 기간에 일떠세웠다.

인민들의 혼신적인 투쟁으로 3개년계획은 2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앞당겨 완수되었다.

3개년계획기간 공업총생산액은 1953년에 비하여 2.8배로, 전쟁전 1949년수준에 비해서는 1.8배로 장성하였으며 알곡생산량은 전쟁전수준을 108%로 넘쳐 수행하였다.



추상수

2) 사회주의기초건설

농업협동화와 사회주의제도 수립

전후 사회주의기초를 건설하는데서 農業協同化를 실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개인경리가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농촌에서 착취와 빙궁의 근원을 없앨 수 없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전쟁으로 인하여 농촌경리가 荒廢化되고 농가의 40%가 穷細農民이 된 조건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농사를 지을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빈농민들을 중심으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진행된 품앗이 반, 소겨리반 등을 통하여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실지 체험하였으며 협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력량도 마련되어 있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공화국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전후에 농업을 협동화하는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협동화 실현의 지도원칙, 발전단계, 協同組合의 형태를 밝히시였다.

농업협동화방침에 따라 먼저 경험적 단계가 설정되고 평안남도

지도원칙	발전단계	형태	토지, 농기구	로동	분배
自願性의 원칙	경험적 단계	제 1 형태	개인소유	로역협조	토지소유자
	대중적 단계	제 2 형태	개인소유 공동사용	공동	토지소유와 로동
	완성단계	제 3 형태	공동소유	공동	로동의 질과 량

협동회의 지도원칙, 발전단계와 협동조합의 형태

*1농업협동화 : 토지와 농기구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협동조합이 소유하여 힘을 합쳐 농사를 짓고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하는 협동경리이다.

*2품앗이반 : 로동에서 품이 드는 일이 생길 때 여럿이 서로 도와 일하는 것이다.

*3소겨리반 : 소를 같이 쓰면서 서로 도와 농사를 짓는 공동로동형태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첫해 분배장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기aze하는 농민들 순안군 원화리에서 1953년 7월 말 첫 협동조합이 무어진 것을 비롯하여 12월 말까지 전국의 모든 군들에서 800여개의 시범적인 협동조합들이 조직되었다.

공화국정부는 現物税와 国家貸与穀을 減免해줄 데 대한 내각 결정 제161호(1953. 9. 17)를 비롯한 수많은 내각 결정을 채택하여 각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에 식량과 종자를 대주고 농기구를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등 아낌없는 방조를 주었다.

그 결과 1954년 말까지 전체 농가호수의 31.8%, 총 경지면적의 30.9%가 협동조합에 망라되었으며 알곡생산량은 개인농민경리에 비하여 1.0~115%나 더 높았고 현금수입은 2~7배나 더 많았다.

협동조합의 우월성이 실물로 나타나자 이해 가을부터 많은 농민들이 조합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1954년 상반년)

- 종자 : 1만 2,766t
- 자금 : 13억 2,800만 원
- 식량 : 1만 1,487t
- 화학비료 : 2만 4,506t
- 804대의 땅락또르를 가진 17개의 농기계 임경소 설치
- 8,267마리의 소, 말을 가진 133개의 徒馬賃耕所 설치

1954년 1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농업협동화의 경험적 단계를 총화하고 이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릴 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대중적 단계에 들어선 농업협동화운동은 自願性의 원칙을 어기고 행정적 방법으로 협동

화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과 같은 편향들을 극복하고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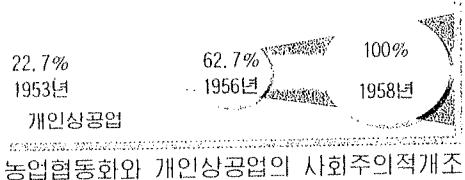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순안군 원화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협동조합들을 현지지도하시여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1956년 말까지 전체 농가호수의 80.9%가 협동조합에 망라되게 되었다.

1957년부터 완성단계에 들어선 농업협동화운동은 1958년 8월에 승리적으로 끝났다.

이 시기 個人商工業者들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었다.

그리하여 공화국에는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청산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서게 되었다.



주체획립 전후에 조성된 복잡한 환경과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역사적 조건에서 시작한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은 모든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남의 나라 경험과 리론을 절대시하면서 전후에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로선을 두고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중한다.》,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 《현대적 기계가 없이는 협동화를 할 수 없다.》고 시비해나섰다.

주체가 서지 못한 경향은 교육과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

야에서도 나타났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1955년 12월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하급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제를 확립하는데 대하여》에서 주

체가 서지 못한 현상을 비판하시면서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는 곧 조선혁명이며 따라서 모든 사상사업을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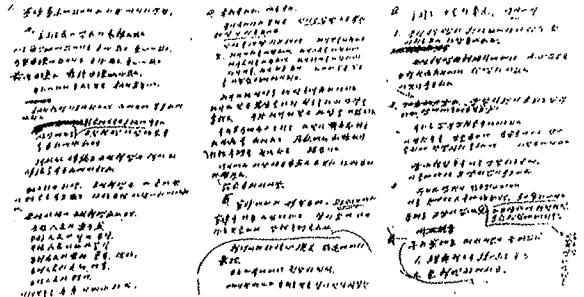
그리고 주체를 세우자면 조선의 역사와 지리, 풍속,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과 당정책 등 자기의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이후 사대주의, 教條主義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모든 분야에서 힘 있게 벌어졌다.

이 시기 국제공산주의 운동안에 현대 수정주의가 대두하였으며 대국주의자들은 공화국에 《뻬드(COMECON)》에 들라고 압력을 가하며 저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일 것을 강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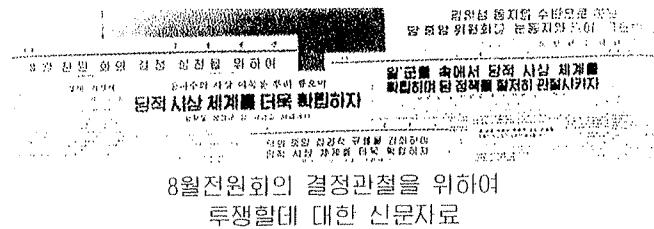
이렇게 되자 최창익, 박창옥 등 종파 분자들은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무장폭동까지 시도하였다.

*교조주의 : 구체적인 현실이나 역사적인 조건을 타산하지 않고 남의 리론이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고전적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제를 확립하는데 대하여》의 진필원고

현대 수정주의
1950년대 중엽에 소련공산당안에서 발생하였다. 현대 수정주의는 노동계급의 수령과 당의領導, 계급투쟁을 거부하고 계국주의 압력에 굴복하여 혁명을 외면하였다.



종파분자들은 1956년 8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8월전원회의)에서 당의 조선과 정책을 반대해 나섰으며 당을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최현을 비롯한 항일투사들과 회의 참가자들은 이들에게 즉시 반격을 가하고 경애하는 주석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견결히 옹호해 나섰다.

전원회의후 조선로동당은 외세의 집요한 간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공장, 기업소, 학교 등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 《조선로동당력사 연구실》이 꾸려지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 전통자료들이 수많이 출판보급 되였다.

1955년 이후 공화국인민들의 사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높아지게 되였다.

천리마운동 1956년 4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5개년 인민경제계획(1957~1961)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미국과 리승만은 《북진》소동에 더욱 광분하였고 현대수정주의자들도 공화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함께 이미 약속한 원조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공화국의 내부형편도 매우 어려웠다.

5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는 자재와 자금, 기술이 의연히 부족하였고 종파분자들의 후과도 남아있었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아름찬 과제와 부닥친 난관앞에 동요하면서 消極性과 保守主義에 사로잡혀 경제발전속도를 늦추려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속에서 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2월전원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조직동원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완수하자!》라는 구호를 내놓고 내부예비를 백방으로 동원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12월전원회의이후 정준택, 강영창 등 당과 국가의 간부들이 전국각지의 중요공장, 농촌들에 내려가 인민들을 적극 동원하였다.

5개년계획의 주요목표	
(1956년에 비해)	
공업년평균성장을	21.5%
강철	3~3.5배
석탄	1.7배
전기	1.5~2배
수산업	1.3배



정준택



강영창

*1소극성 :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사업하고 생활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진보와 혁신을 방해하는 사상경향, 사업태도이다.

*2보수주의 : 낡고 뒤떨어진것에 매달려 새롭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진과 혁신을 방해하려는 사상경향이나 관점이다.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56. 12. 28)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제일 긴장한 鋼材 문제를 풀기 위하여 12월 28일 강선제강소를 찾으시고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강선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남이 한발자국을 걸으면 우리는 열발자국을 걸고 남이 열발자국을 뛰면 우리는 백발자국을 뛰는 정신으로 6만t밖에 생산할수 없다면 분과압연기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천리마운동은 공업과 농업, 교육, 문화를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서 힘있게 전개되였으며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었다.

천리마운동이 심화되는 속에서 진용원을 비롯한 강선제강소 강



진용원

천리마운동과정에 일어난 기적과 혁신

- 뜨락또르, 자동차 35~40여 일 사이에 생산
- 평양시에서 1958년에 살림집을 14분에 한세대 씩 조립하는 《평양속도》창조
- 3~4년이 걸려야 한다던 해주-하성사이 200리 철도부설공사를 단 75일 만에 완공
- 1년 남짓한 기간에 대규모비날론공장을 건설하여 《비날론속도》를 창조



당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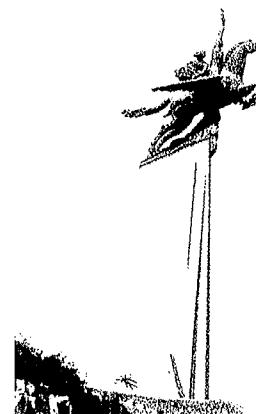
기양뜨락또르공장에서 뜨락또르생산

철직장의 로동계급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를 들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이 더욱 조직화되고 심화발전된 형태로서 그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면서 확대발전되었다.

그 과정에 평양제사공장의 처녀작업반장인 길학실을 비롯한 수많은 천리마기수들이 자라나게 되었으며 사람도 산천도 새롭게 변모되었다.

천리마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높여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었다.



천리마동상



평양시에서의 살림집건설

	공 화 국	남 조 선	대 만	인 도	중 국	일 본
1953년	100	100	100	100	100	100
1956년	285	143	125	126	190	144
1959년	860	212	190	143	360	208
평균년성장률	38.3	16	11	6	24	13

경제장성속도의 대비

천리마운동이 힘 있게 벌어진 결과 5개년계획은 공업총생산액적으로 불과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되었으며 공화국은 튼튼한 자립적 경제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되었다.

정산리정신과 정산리방법

천리마운동이 고조되는 속에서 인민대중의 자각과 열의는 비상히 높아졌다. 발전하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조직동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당과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최官僚主義, 형식주의의 밖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민대중의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지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조선로동당은 당, 행정일군들에 대한 강습, 집중지도사업 등 여러 대책들을 세웠다. 1959년 12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혁명적군중로선을 구

*1권료주의 : 대중의 창발적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대중과 떨어져 직권을 가지고 명령과 호령으로 내리먹이려는 사업방법이다.

*2형식주의 : 내용이 없이 겉치레만 차리는 사업작풍이다.

*3혁명적군중로선 : 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끌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강서군 정산리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현하고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강연이나 강조만 해서는 해결 할 수 없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 2월 5일 평안남도 강서군 정산리에 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그곳에 보름동안 머무르시면서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인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 과정에 창조된 정산리정신, 정산리방법은 대중에게 의지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

정 산 리 방 법 의 기 본 내 용	<p>우선 아래를 도와주고 상하가 합심하여 사업하는 것</p> <p>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 도를 세우는 것</p> <p>정부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 세우고 대중의 자작적 열성과 창조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 을 수행하는 것</p>
--	--

을 동원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주체적인 대중지도사상이며 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온 나라 모든 부문에서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낡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 아래에 직접 내려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묘해하고 실속있게 도와주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풍모를 갖추어 나갔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됨으로써 천리마운동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 창조력에 의하여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공화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첫날부터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이에 편승하여 리승만《정권》도 《무력부진통일론》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남조선의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제네바 회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쌍방의 엇갈린 주장과 입장은 제네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립되었으며 회의는 끝내 결렬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

주요 안건	공화국의 주장	미국과 남조선의 주장
외국군대 철거 문제	6개월내 모든 외국군대 철수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유엔군』은 계속주둔
남북 선거 실시	『유엔』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없는 전 조선적인 자유선거 실시	『유엔』감시하 남북조선의 자유선거 실시
평화 협정 및 교류 병력축감 문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경제문화교류의 실현, 1년이내에 남북병력을 10만이하로 축감	_____

제네바 회의에서의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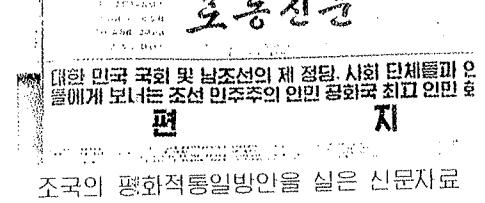
1956년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조선민족끼리 서로 만나 접촉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애국적인 사람들과의 회담을 소집할데 대한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내놓았다.

공화국정부는 1956년 5월 31일에 조선인민군대 8만명을 축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8월 31일까지 어김없이 실행하였다.

1958년 2월 5일에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동시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해 10월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1950년대에만도 실로 60여차례 걸쳐 다양한 협상과 교류방안들을 내놓았다.

공화국정부는 남조선당국이 이 모든 통일방안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제안들을 계속 제기하였다.



조국의 평화적통일방안을 실은 신문자료

특히 4.19인민봉기로 리승만《정권》이 무너진 새로운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조국해방 15돐 경축

대회 보고에서 南北連邦制를 실시할데 대한 통일방안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협정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협정제에 의한 조국통일방안은 북남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을 양양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이에 기초하여 196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 남조선경제의 복구를 위한 원조협력과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동포애적조치들을 제기하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하였으며 개성의 건설로 동자들이 남조선의 마산에 4,0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결의해 나선것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뜨거운 동포애의 심정으로 남조선인민들의 뜻까지 일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벌리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통일방안과 동포애적조치, 공화국인민들의 동포애적발기는 미국과 리승만《정부》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거대한 힘으로 되였다.

No	건설 대상	능력
1	흑색금속종합공장	55만t
2	수력발전소	21만kwh
3	세멘트공장	40만t
4	공작기계공장	1,000대
5	농업기계공장	5,000t
6	평신기계공장	5,000t
7	비료공장	20만t
8	핀유리공장	300만m ²
9	인조섬유공장	1만t

공화국이 제기한 동포애적발기

③ 민주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 미국의 《경제원조》와 독재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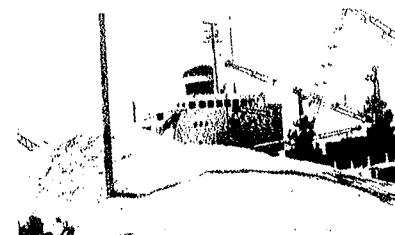
미국의 《경제원조》와 남조선사회의 《복구》

정전직후 남조선의 농업은 파괴되고 전쟁전부터 실시된 《農地改革》이 전후에 더욱 본격화되면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더욱더 령세화되었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락후한 상태였다.

남조선경제는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物価上昇으로 인하여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져있었다.

미국은 《전후복구》를 위한다고 하면서 1953년 12월에 남조선과 《經濟再建 및 財政安定計劃에 관한 韓米合同經濟委員會協約》을 체결한 후 각종 《원조》를 주기 시작하였다.



인천부두에 쌓인 미국산 밀가루

《한미합동경제위원회협약》 (우드협정)

전후 남조선경제의 《복구》원칙을 규정하고 《원조》물자의 반입, 분배, 리용 등을 《합동경제위원회》 단장인 미국인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남조선경제전반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게 한 협정이다.

《잉여농산물원조협정》

미국에서 남은 농산물을 남조선에 《원조》의 형태로 출것을 계약한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하여 미국은 1956~1961년까지 2억 300만US\$의 농산물을 남조선에 《원조》하였으나 판매액의 10~20%를 미국이 쓰고 80~90%는 국방비에 돌리도록 의무화하였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
대량적으로 들이밀었다.

광복후부터 1960년 대초까지 미국이 남조선에 준 《원조》총액은 약 31억 US\$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전후 남조선 《정부》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을 저들의 반공군사 기지로 만들기 위한 군사 《원조》였다.

《원조》의 결과 주 《한미군》이 유지되고 72만명의 《국군》이 육성 되었으며 그 과정에 남조선 사회에서는 《국군》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부세력이 형성되어 갔다.

《원조》에 편승한 리병철을 비롯한 買弁 資本家들이 独占財閥로 등장하여 미국과 리승만의 통치를 적극 안받침하였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대부분 몰락하였으며 《잉여농산물원조》로 남조선의 농업은 더욱 파산되어 갔다.

그리하여 농촌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도시로 밀려들어 都市貧民으로 되어갔다.

독재정치의 강화 전쟁을 통하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한 리승만은 전후 전쟁의 참화를 과대선전하면서 《반공》, 《반북》을 國是으로 하고 《우리의 맹세》라는 것까지 만들어 반공군사교육을 강화하였다.

한편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재구축하기 위하여 경찰을 2배로 증강하고 그를 미국식으로 재교육, 재편성하였으며 《大韓青年團》을

남조선의 독점재벌

미국의 《경제원조》에 기생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은 재벌들이다.

이러한 재벌은 《三星》, 《럭키金星》 등이었으며 특히 이 시기 《잉여농산물원조》인 밀가루, 면화, 설탕 등 환색물자를 중계하여 돈벌이 한 재벌들을 《三白財閥》이라고 했다.

무장시켜 경찰의 역할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종세력을 긁어모아 《자유당》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원조》를 이용하여 새로 형성된 독점개별들로 지지기반을 꾸렸다.

이에 기초하여 리승만은 장기집권체제를 꾸려나갔다.

리승만은 《大統領3選》을 제한한 《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하여 1954년 5월 《第3代民議員選舉》를 강행하였다.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자기의 심복들로 꾸린 리승만은 1954년 11월 동서고금에 없는 《四捨五入改憲》으로 《대통령선거》에 재출마하였다.



《4사5입개헌》

《대한청년단》

광복후에 나온 《민족청년단》, 《서북청년단》 등 청년태로단체 12개를 통합하여 1949년 12월에 만들었다. 리승만의 정치폭행을 추동하는 중심세력으로서 200만명의 단원을 망라하였다.

이에 맞서 보수야당세력은 《민주당》을 내오고 신익희를 《대통령후보》로, 애국적인사들은 《진보당》을 조직하고 조봉암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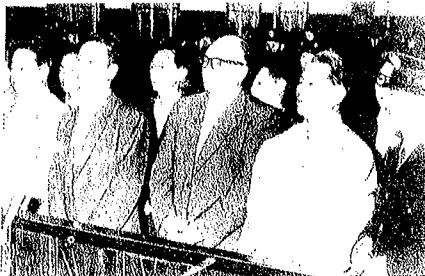
신익희의 사망으로 선거는 조봉

남조선의 3대정당

《자유당》(1951. 12) : 리승만독재의 거수기적역할을 하는 당으로서 매판재벌들로 구성

《민주당》(1955. 9) : 리승만에 대항해 나선 우익정당으로서 지주, 친일, 친미파로 구성

《진보당》(1956. 11) : 외국군대 철수, 남북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당으로서 각계각층의 민주력량으로 구성



재판장에 나선 진보당 성원들



조봉암

암과 리승만의 대결로 되였다.

《피해대중구제, 폭넓은 민주화, 평화통일》을 주장한 조봉암은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공정한 선거로는 이길수 없게 된 리승만은 1956년 5월에 진행된 《第3代正副統領選舉》에서 태로, 협박, 매수 등 온갖 부정행위로 《대통령당선》을 날조하였다.

《선거》이후 리승만은 《반공》의 간판밑에 자기의 반대파들을 제거해나갔다.

1958년 1월에는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조봉암 등 10여명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하였으며 조봉암을 即決裁判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12월에는 《保安法波動(2.4파동)》을 일으켜 《신

국가보안법》을 조작하였으며 자기의 반대파들에 대하여서는 《공산주의》라는 띡지를 붙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리승만의 독재는 극도에 달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보안법파동》

*《보안법파동(2.4파동)》: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자유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사건이다.

2) 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

4. 19인민봉기

전후 미국의 《원조》와 리승만의 독재정치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고 1957년부터 《원조》를 축감함으로써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으며 인민들은 《4천년래의 民生苦》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였다. 노동자들은 1958년부터 1959년에 걸쳐 밀린 임금지불과 해고반대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390건이나 벌렸다.

농민들도 320건에 달하는 각종 투쟁을 벌렸다.

청년학생들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점차 반《정부》투쟁으로 넘어가면서 투쟁을 고조시켜나갔다.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불만은 1960년 3월 15일 《第4代正副統領選舉》를 계기로 폭발하였다.

『4천년래의 민생고』
미국의 《원조》와 리승만독재정치의 결과로 빚어진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1950년대 말 실업자수는 660여만명(로령인구의 67.3%), 絶糧民은 300만명, 結核患者는 210만명에 달하였고 出生児의 사망률은 22%, 평균 수명은 33살이였다. 1959년에 자살한 사람은 1955년에 비하여 10배였다.

3억 8,300
만 US\$
3억 2,100
만 US\$
2억 2,200
만 US\$
2억 4,500
만 US\$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3. 15부정선거때 조작된 선거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투쟁

3. 15不正選舉의 내막이 알려지자 경상남도 마산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로동자, 시민들과 함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벌리였다.

투쟁은 서울, 부산 등 각 도시로 삽시에 퍼졌으며 경찰은 무차별적인 발포로 시위를 탄압해나섰다.

그러한 속에서 4월 11일 마산앞바다에서 김주렬학생의 시체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마산시민들과 학생들은 또다시 봉기에 일떠섰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4,000여명의 시위를 경찰과 깡패들이 탄압하여 희생자가 나오자 서울시안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부정선거반대》의 구호를 《독재정치라도》로 바꾸고 대규모항쟁으로 넘어갔다.

4월 19일 서울시안의 10만여명의 학생들과 인민들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리승만 물러가라》, 《썩은 정치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景武台》로 향하였다.



학살된 김주렬학생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투쟁

3. 15부정선거

《第4代正副統領》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리승만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병치료를 하는 틈을 타서 5월에 예정된 《선거》를 2개월 앞당겨 진행하였으며 유령 유권자의 代理投票, 투표함의 교체 등 온갖 부정을 다하였다.

이에 절겁한 리승만은 《非常戒嚴令》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내몰아 시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게 하였다.

결과 19일 하루에만도 186명이 사살되고 6,026명이 부상을 입는 《피의 화요일》 참사가 벌어졌다.

리승만은 《부대통령》인 리기봉을 퇴진시키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으나 4월 25일 대학교수들이 시위에 뛸쳐나서자 남조선인민들의 시위는 절정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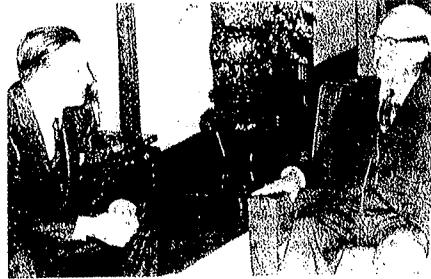
당황한 미국은 주 《한》미 군에 非常待機命令을 하달하여 봉기 진압의 태세를 갖추는 한편 인민들의 투쟁의 창끝이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리승만에게 퇴진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4월 26일 12년간에 걸친 리승만의 독재 《정권》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다.

4. 19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힘에 의하여 처음으로 《정권》을 타도한 역사적인 봉기였으며 전후 남조선민주화운동의 새 출발점으로 되었다.



대학교수들의 시위투쟁



리승만의 퇴진을 강요하는 미국대사

4. 19선언문》의 일부

《이제 막자유의 전쟁엔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정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의 불길은 료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 자유의 종을 란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천추하에 미칠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과 같이!

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

4월인민봉기에 의하여 남조선의 통치기구가 마비되자 무정부상태를 방지하고 새 《정부》 출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미명 하에 미국은 1960년 4월 28일 《외무장관》이였던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파도 정부》를 내왔다. 《파도정부》는 《민주당》이 내놓은 《內閣責任制개혁》에 따라 《7.29선거》를 거쳐 8월 23일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장면은 《애국적이며 량심적인 거국내각》의 조직을 떠들었으나 《내각》의 대부분이 친일관료들로 구성되었으며 《민주당》내의 파벌싸움으로 하여 《정권》의 기반은 미약한 상태였다.

장면 《정권》은 부정선거행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선포하였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그들을 비호해나섰으며 《經濟優先主義》를 내세우고 미국의 《경제원조》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등 리승만 시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4.19인민봉기 이후 일시적이나마 주어진 《민주화》의 공간을利用하여 투쟁을 고조시켜나갔다.

학생들은 학원민주화운동, 신생활동운동 등 새 생활, 새 도덕 운동을 전개하였고 진보적정치세력들은 《사회대중당》을 결성하는 등 여러 정당, 단체들을 재건하였다.

이 시기 노동자들의 진출이 더욱 적극화되어 갔다. 노동자들은 어용로조인 《대한로총》을 해산하고 《全國勞働組合總連盟》(1960. 11)을 조직하였으며 그 산하에 914개 조합을 망라하고 조합원도 32만여 명으로 늘어였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해동안에 282건에

《사회대중당》(1960. 11. 24)

진보당 성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애국적인 사람들이 결성한 당으로서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적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7.29선거》: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조용수

달하였다.

장면 《정권》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는 속에서 학생들과 진보적정치세력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서는 민족통일을 이루하여야 한다는것을 깨닫고 통일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진보적정치세력들은 공화국의 남북련방제통일방안에 힘을 얻어 1961년 2월 25일 民族自主統一中央協議會(民自統)를 결성하였으며 조용수를 사장으로 하는 민족일보사는 《民族日報》(1961. 2)를 창간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였다.

《2대악법》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의 2가지 법을 이르는 말이다. 《반공법》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정당, 단체들을 간첩활동으로 인정하고 종신형으로부터 사형까지 가하는 법이다.

《데모규제법》은 공공전물로부터 20m 이내에서 데모와 집회를 일체 금지하는 등 모든 데모를 범죄로 인정하는 법이다. 이 법들은 인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보류되었다가 5.16《군사정변》이후에 제정되었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사회대중당의 지도밑에 4월인민봉기후 진보적정당, 사회단체 등 애국적민주력량이 집결된 통일전선 협체이다.

이 협의회는 《민족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당면하게는 《남북간의 서신교환 및 문화교류 등을 실현할것》을 주장하여 나섰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국은 1960년 12월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과의 접촉을 하자면 《유엔군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장면 《정권》은 《민주》의 간판을 벗어던지고 1961년 3월 《2대악법》을 조작하고 애국적인 민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
세력을 탄압하여 나섰다.

『민자통』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 1961년 3월 15일~4월 19일 기간을 4.19인민봉기 1주년 기념기간으로 설정하고 통일을 요구하는 시위를 줄기차게 벌리였다.

청년학생들은 4월 19일에 『4.19 제2선언문』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5월 5일에는 전국의 17개 대학, 1개 고등학교를 망라한 『민족통일전국학생련맹발기인대회』를 열고 5월 안으로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기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중적인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4.19 제2선언문』의 일부

『…반봉건, 반외압세력, 반매판 세력우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다. 이 민주민족혁명수행의 앞길에는 깨여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들 죄운 대별은 정비하고 전진 한다.』



『기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4 조선전쟁후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

1) 조선전쟁후 일본의 형편과 재일동포들의 처지

조선전쟁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따라 재무장화를 다그치였다.

미국은 요시다정부와 『미일상호방위원회협정』(1954. 3) 등 각종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종속시키는 한편 재무장화를 부추겼다.

요시다정부는 1954년 3월 일본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위청 설치법안』, 『자위대법안』을 내놓고 『보안대』를 『自衛隊』로 개편하였으며 무력을 통설하는 『防衛府』를 내왔다.

일본은 自由民主党(자민당)의 일당지배를 수립한 『55년체제』를 확립한 후 『자위대』무력

『미일상호방위원회협정』 (MSA협정)

이 협정에서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원조』를 받는 대가로 재무장과 제국주의 진영의 무력증강에 힘쓰며 이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150명의 『미군사고문단』을 일본에 주둔시킨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일본 『자위대』를 미군의 통제 밑에 두고 미국식으로 장비하며 훈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미일상호방위원회협정』의 체결



신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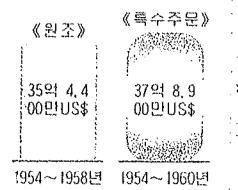
*『55년체제』: 보수세력(민주당과 자유당)이 연합하여 만든 자유민주당과 혁신세력이 연합하여 만든 사회당의 2대정당제를 말한다.



《자위대》

27만명
1960년
↑
15만 1,000명
1954년

《자위대》무력의 확대



미국의 《원조》와 특수주문

의 확대와 현대화를 더욱 다그쳤다.

이와 함께 일본은 조선전쟁特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제 토대에 기초하여 《미일경제협력체제》의 명목 밑에 高度成長政策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일본독점자본이 부활되고 미국독점자본에 의한 일본 경제의 예속화가 추진되는 한편 저임금, 로동강도의 강화와 중소 기업들의 파산,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일본인 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어갔다.

특히 일본정부는 대미추종정책에 따라 재일동포들을 계속 치안 유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탄압을 강화하였다.

일본당국은 1955년 3월 《외국인등록법의 指紋에 관한 정령》을 제정하여 동포들을 체포하고 형벌을 가하였으며 《출입국관리령》에 따라 《不穩分子》, 《密入國者》라고 하면서 《大村收容所》 등 각 수용소들에 수많은 동포들을 억류하였다.



《오무라수용소》에 억류된 동포들

이와 함께 国籍條項에 따라 동포들을 모든 사회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였다.

일본당국의 직업차별, 취직차별 등 민족차별정책으로 하여 동포들의 기업

활동은 급속히 파탄되어 갔으며 《조선인》은 대학을 졸업하여도 취직을 할 수 없었다. 1955년 현재 80%에 달하는 재일동포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품팔이로동과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하여 재일동포들은 정전후에도 무권리와 생활고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벼락신에서 석탄을 쳓는 동포들

2)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의 결성

일본정부의 민족차별정책으로부터 재일동포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과 권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으로 선전환방침을 구현하여 하루빨리 진정한 동포대중조직을 결성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민전의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오유를 인정하지 않고 애국적활동가들을 동포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였으며 로선 전환방침의 실현을 방해해 나섰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43(1954)년 9월 로선전환방침을 실현하자면 새로운 해외교포조직을 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조직은 재일동포들의 생활상문제, 공화국공민권옹호문제,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권리보장문제, 조국통일문제 등을 기본으로 하여 활동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호소문과 민전 제4차, 제5차 전체대회에 축전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복간 된지 얼마되지 않은 《해방신문》에 국문활자를 보내주고 1955년 4월부터는 조선중앙방송국에서 재일동포들을 위한 방송시간을 정

하고 방송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무된 애국적 활동가들은 주체적으로 선전환방침을 편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애국적 활동가들은 《해방신문》을 통하여 로선전환방침을 전달하니 차지하도록 하였으며

학우서방, 구월서방에서 《김일성선집》을 번각출판하고 공화국의 각종 신문, 잡지, 도서들을 적극 보급해 나갔다.

로선전환방침을 편철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열어 놓은 것은 1955년 3월에 열린 민전 제19차 중앙위원회였다.

회의에서 애국적 활동가들은 주체적으로 선전환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로선전환은 단순히 《전술전환》이나 《정세발전에 따르는 전환》이 아니라 로선상의 오유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전환할 때 대하여 결정하였다.

회의 후 새로운 교포조직을 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민전 현본부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에서 현이어로 선전환을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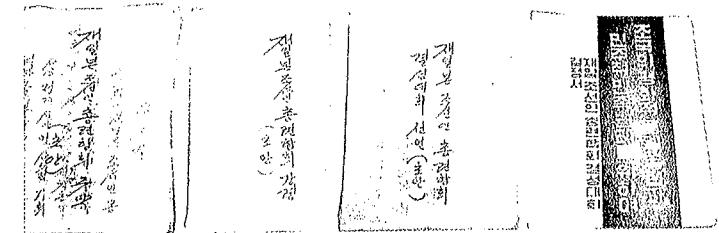
총련결성대회

1955년 4월에는 민전 제6차 림시대회 준비위원회와 총련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새로운 조직의 선언, 강령, 규약, 방침 토의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



조국에서 보내온 국문활자로 신문을 찍어내는 출판일군들



선언, 강령, 규약(조약)들과 결정서

여 민전 제6차 림시전체대회(1955.5.24)에서 민전의 해산을 정식으로 결정한데 이어 5월 25일~26일 도쿄 이사부지 浅草公会堂에서 총련결성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주체적으로 선전환방침을 구현한 활동방침과 창립선언, 8대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고 25일 공화국의 해외교포조직인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총련)의 결성을 선포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55년 5월 25일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이날에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조국의 통일과 통성번영에 이바지하며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참다운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8대강령의 기본내용

-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집결시킨다.
-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헌신한다.
-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일본 및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더욱 굳게 하며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총련결성에 대한 《해방신문》자료

3) 민족교육과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발전

애국애족의 동포
대중조직으로

재일동포들은 참다운 해외교포조직인 총련
을 가지게 됨으로써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고 일떠섰다.

갓 결성된 총련앞에는 미일반동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애국
적열의로 들끓는 재일동포들을 뮤어세워 주체적인 애국운동로선
을 관철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섰다.

이러한 때인 1955년 9월 29일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총련결성
후 처음으로 조국에 간 8.15광복 10주년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을 만나시여 총련조직을 강화하고 애국운동을 전개해나가
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아래조직을 네오기 위
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열의에 의하여 총련의 지방본부, 지부,
분회를 조직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 결과 1년사이에 45개 도, 도, 부, 현에 지방본부가 결성되
고 그아래에 403개의 지부와 1,500개의 분회가 조직되었다.

각계각층 동포들로 무어진 단체들을 총련조직에 뮤어세우기 위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지부의 조직



후쿠오카현 고구리분회의 조직

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민전시기의 재일본조선민주애국청년동
맹(민애청)을 해산하고 1955년 8월 1일
在日本朝鮮青年同盟(조청)을 새로 결성하
였다.

9월에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의 랙
칭인 녀동을 녀맹으로 고치고 주체적으로선
에 기초하여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였다.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会(상공련)를 비
롯한 여러 단체들이 총련의 산하단체로 망라되었다.

이와 함께 총련의 중앙본부와 여러 단체가 사업해나갈수 있는
조선회관(도쿄도 新宿区 信濃町)이 1956년 8월에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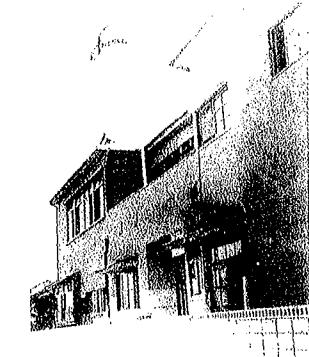
그리하여 총련은 각계각층 동포들을 망라한 대중조직으로 되
었다.

총련은 조직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안을 해설선전하는 사업, 《동포들사이에서 38
도선을 없애자!》는 구호밑에 벌린 민족단합사업 등 조국통일실
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밀고나갔다.

또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원자무기반입반대(1957. 6)와 《原水
爆禁止, 조선에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평화서명운동》(1958. 1~2)

을 전국적규모에서 조직전개 하
였다. 그리고 제1차 원수폭금지
세계대회(1955. 8), 제1차 아
시아, 아프리카인민 단결대회
(1957. 12)에 총련의 대표단
을 보내여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이 과정에 총련은 광범한 동



준공된 조선회관



제1차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포들을 망라한 대중조직으로 서뿐 아니라 조국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인 평화애호단체라는것이 인정되고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새로운 발전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염원인 민족교육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둘리였다.

당시 민족교육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많은 학교들이 일본당국에 의하여 폐쇄된채로 있었으며 운영하고있던 학교들도 校舍難, 施設難, 資金難을 겪고 있었다.

1955년 3월 현재로 자주학교는 71개에 지나지 않았고 학생수도 1만 7,000여명밖에 안되었다.

이것은 일본당국의 탄압폐쇄정책, 동화정책으로 하여 초래된것이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이미 있는 자주학교를 지켜나가는 한편 일본공립학교, 공립분교, 민족학급으로 되여 있던 조선인학교들을 자주학교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오사까, 후쿠오카, 아이찌 등 각지에서는 일본 지방자치당국에 요청서를 들이대는 등 적극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일본인민들의 지지성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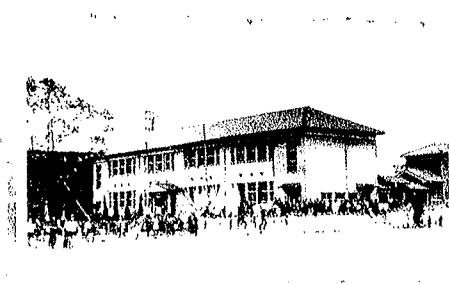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적극적인 투쟁 그리고 광범한 일본인민들의 지지성원에 의하여 많은 지방들에서 민족교육의 자주권이 회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인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



학교건설에 떨쳐나선 동포들



새로 일떠선 규슈중고급학교

복되였다. 도쿄에서 만도 도립으로 운영하던 13개의 초급학교와 1개의 중학교, 1개의 고급학교를 자주학교로 전환시키고 東京朝鮮學園의 認可를 획득하였다.

총련은 이와 함께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오사까, 교또, 야마구찌 등 곳곳에서 자주학교건설을 적극 다그쳤다. 동포들은 높은 열의를 안고 한푼, 두푼 모은 돈을 학교건설에 바쳤으며 학교건설장에 달려 나와 땀흘려 일하였다.

그리하여 총련결성후 불과 5년사이에 초급학교 18개, 중급학교 16개, 고급학교 2개가 새로 건설되었다.

총련은 학생들을 애국사업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1956년 4월 조국의 교과서와 교원용참고서들에 기초하여 교과서도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다.

민족교육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준비된 민족간부들과 교육일군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총련은 1955년 9월 조선대학교창립사업을 추진할것을 결정하고 이 사업을 활발하게 밀고나갔다. 애국적활동가들과 동포들은 《大学無用論》, 《時期尚早論》을 주장하는 일



총련에서 출판한 교과서들

조선대학교

도쿄중고의 한 교사를 리용하여 1956년 4월 2년제로 시작된 조선대학교는 1958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고 1959년 6월 도쿄도 小平市에 일떠선 새 교사로 옮겼다. 조선대학교는 현재 8개 학부와 연구원(대학원), 도서관, 기념관, 체육관 등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대학으로서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다.



조선대학교

부 사람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1956년 4월 10일 조선대학교를 창립하였다.

조선대학교가 창립됨으로써 민족교육은 초급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조선대학교의 창립은 세계 해외교포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해외교포대학의 출현으로써 총련사업과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教育援助費와 奬奖学金을 보내주신것을 계기로 더 급속히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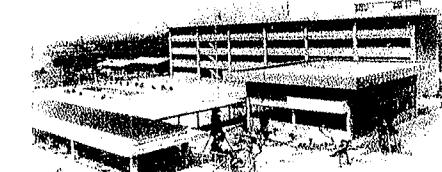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1957년 1월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이 부족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해마다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줄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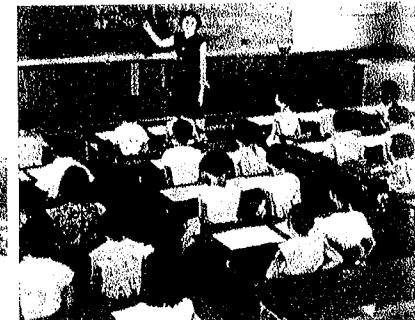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1957년 1월 5개년계획의 첫해 국가예산을 토의하는 내각회의에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국가예산항목을 나오도록 하시고 4월 8일 1억 2,109만 9,086원(일본돈으로)의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한해도 중단없이 보내오고 있다.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학생들



서로 일떠선 조선대학교



자주학교에서 마음껏 배우는 학생들

대한 뜨거운 동포애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재일동포들은 1957년 4월 8일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게 되였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조선대학교 새 교사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교사와 교육설비들이 마련되고 수많은 동포자녀들이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되였다. 민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여 1960년에는 371개의 각급 학교에서 4만 6,000여명의 동포자녀들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게 되였다.

참으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토대를 강화하는 생명수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귀국의 권리획득

조선전쟁후 일본당국의 민족차별정책과 심한 경제파동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은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처지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일본당국이 1956년부터 재일동포生活保護者수를削減함으로써 동포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여갔다.

이러한 형편에서 재일동포들이 광복직후부터 품어온 귀국의 열

138,972 (24.0%)	생활보호자수의 식립
127,320 (22.8%)	
107,694 (19.8%)	
89,761 (15.6%)	
80,178 (13.5%)	
1953.12 1954.12 1955.12 1956.12 1957.12	

망은 더욱 높아졌다.

조국이 북과 남으로 분렬된 현실앞에서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으로 가는가 남조선으로 가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것은 채일동포들의 대부분
이 고향이 남조선이기 때문이
었다.

그들은 가족,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원하였으나 《4천년래의 민생고》속에서 하덕이는 남조선의 생활형편과 《밀향민》들의 증가, 리승만《정권》의 《^{기·임·봉·생}民政策》으로 하여 남조선에로의 귀국을 단념하지 않으면 아도였다.

재일동포들의 눈은 광복직후부터 언제나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왔으며 부강조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공화국으로 놀라게 되었다.

바로 이려한 때인 1955년 9월 29일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조국에 찾아간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접견하시고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동포들을 받아들일 데 대한 확고한 립장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지금 재일동포들 가운데 똑똑한 일자리가 없어 그날그날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일본에서 살수가 없어 조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반갑게 맞이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그해 12월에 외무상성명을 통하여 이 입장을 내외에 선포하고 이에 협력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재일동포들은 여러가지 혀태의 귀국운동을 벌렸다.

《기민정책》

해외동포들을 버린다는 뜻으로
써 《대한민국헌법》에는 《재일동
포보호》라는 항목이 없었다. 《민
단》에서는 1952년에 《建議書》를
만들어 리승만《정부》에 제출하였
으나 실천된것이 없었다. 그리하
여 《민단》은 1959년 6월에 리승
만《정부》의 보호시책이 《全無》하
다는 《불신결의》까지 채택하였다.



귀국을 요구하여 단식투쟁을 벌리는 《오무
라수용소》에 억류된 동포들과 청원서



귀국의 널원을 담은 편지를 쓰고 있는 나까도메분회의 농포들

갔다

1956년 11월 23명의 동포들이 自費로 門司—上海를 거쳐 귀국하였으며 《오무라수용소》에 억류된 동포들은 강제송환을 반대하고 즉시 석방과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운동은 1958년 8월 총련 가나가와현 가와사
까지부 中留분회 동포들이 《조국야야기모임》을 가지고 공화국에로
의 집단적 귀국을 결의해 나서 것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여갔다.

도꾜에서 진행된 조국광복 13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경축대회 등 일본각지에서 열린 경축대회들에서도 동포들의 귀국념원을 담은 결의를 채택하고 경애하는 주석님께 편지를 올리였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며 귀국후 생활
을 보장한다는 입장은 차 표명하였으며 1958년 10월 중순에는 귀국에 필
요한 일체 려비와 선박을 공화국에서 보장하는 등 귀국실현을 위한 조치를
련이어 취하였다.



귀국설현을 위한 도꾜조선인대회



《렬차정지사건》

들었고 《렬차정지사건》(1959. 12)까지 일으켰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이러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일본각지에서 군중집회와 서명운동, 일본정부에 귀국요청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귀국운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이 운동은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동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수 없게 된 일본당국은 귀국협정의 체결로 얻게 되는 정치경제적인 리해관계를 타산한데 기초하여 1959년 2월 13일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으로 귀국시킬데 대한 결정을 내리였다.

조일적십자대표단사이의 회담의 결과 1959년 8월 13일에는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 12월 14일 975명



귀국에 관한 협정의 즉시 조인을 요구하여 서명운동을 벌리는 동포들



귀국실현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동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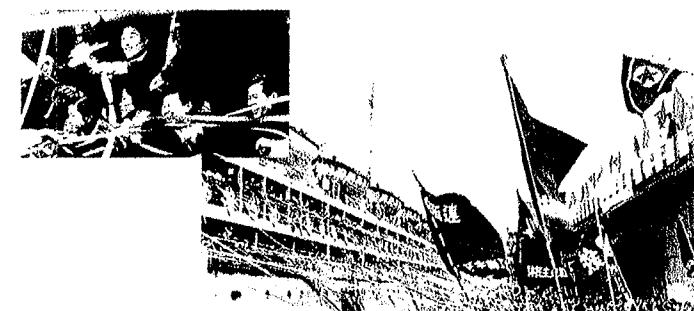
귀국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나가자 리승만《정권》은 일본파의 《국교교섭을 그만두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귀국협정의 체결을 방해하였으며 《민단》은 《北送反對》의 구호 밑에 《북송반대실력 저지투쟁위원회》(1959. 2)를 만



일본으로부터 제1차로 귀국한 동포들을 만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의 동포들을 태운 첫 귀국선이 나이가다항을 떠나 16일에는 조국의 청진항에 입항하게 되었다.

귀국의 실현은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 재일동포들이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옹호를 위한 투쟁에서 쟁취한 승리로 되었을 뿐 아니라 동포들의 힘에 의지하여 벌리는 애국애족운동의 기초로, 양양의 계기로 되었다.



제1차 귀국선이 떠나는 나이가다항

제 4 편 외세의 압력과 재침책동을 물리치고 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투쟁(1961-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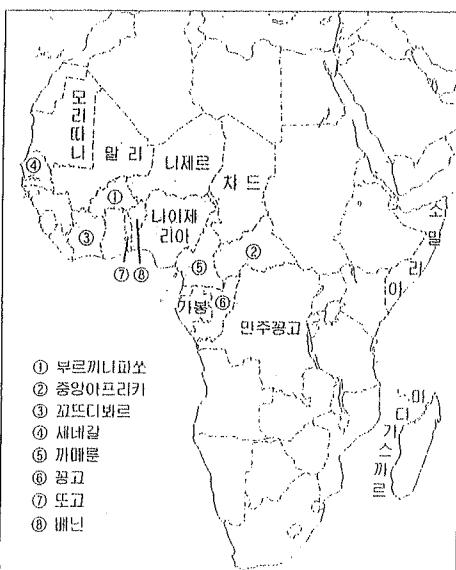
1 국제무대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조선반도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체계와 동서간의 대립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 하에 있던 아프리카에서 1960년에 17개

나라가 새로 독립을 이룩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체계는 전면적파탄에 직면하였다.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1960년 12월 유엔 제15차총회에서 《植民地独立付与宣言》을 채택한것을 비롯하여 식민주의, 신식 민주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였으며 1961년부터 반제 자주의 리념 밑에 뿐역불가담 운동을 개시하였다.



새로 독립한 아프리카 나라들(1960년)

* 뿐역불가담운동(非同盟運動) : 1961년 9월에 열린 제 1 차 뿐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그 어떤 군사 뿐역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하여 뿐역불가담운동이라고 불렸다.

신흥세계 나라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1960.8), 《아프리카 통일기구(OAU)》(1963.5), 《팔레스타니해방기구(PLO)》(1964.5)들을 창설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 있게 벌리었다.



제 1 차 뿐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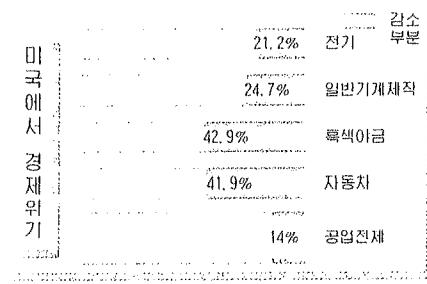
사회주의 세도가 수립되고 비약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1957년 쏘련에서의 大陸間彈道미사일과 人工衛星발사의 성공은 미국의 《핵우위》, 《군사우위》의 지위를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1960년 4월 뛰르끼예와 남조선에서의 친미《정권》의 붕괴는 미국의 대사·회주의 봉쇄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세계의 곳곳에서 민족해방투쟁의 양양으로 하여 원료원천지와 시장의 축소, 쏘련과의 군비경쟁과 추종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부담으로 미국은 1957년부터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것은 딸라와 핵무기에 의한 미국의 세계제패전략과 아이젠하워 정권의 《대량보복전략》의 파탄을 의미하였다.

미국의 霸權的地位와 제국주의의 지배질서가 급속히 무너져가던 시기 국제공산주의 운동안에서는 현대수정주의의 대두로 하여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경제위기(1957-1958)

현대수정주의자들은 1957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사회주의 12개국 공산당, 로동당 대표회의 이후 《평화·공존론》을 내세우고 《세계 혁명의 중심》을 만들어 저들의 대米妥協, 대米追從政策을 남의 나라에 강

요하려고 하였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안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태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방해하였으며 전반적 세계혁명 발전에 부정적 후과를 끼치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1961년 1월에 새로 등장한 미국의 캐네디 정권은 《평화, 협상, 교류》의 간판밑에 《신축성있는 빙동전략(柔軟對應戰略)》을 내놓았다.

이것은 평화외교공세와 무력공세를 결합시킨 《両面政策》이였다.

미국은 이에 따라 유럽에서 정세를 《완화》시키면서 사상문화적 침투를 통한 사회주의제도의 와해를 노리는 한편 반제반미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던 아시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이 지역에 많은 미군부력을 집중시켰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지배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하여 조선과 웨남 등 작고 분열된 사회주의나라, 반제적립장이 강한 나라들을 각각격파하는데 대한 아시아정책을 들고나왔다.



국회에서 연설하는 캐네디

《신축성있는 반응전략》

- ① 쏘련에서 나타난 《평화공존》과 중쏘대립에 대응하여 쏘련에 《평화적으로 접근》하면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 ② 조선, 웨남 등 사회주의나라들 특히 반제적립장이 특철한 나라들을 각각격파하는 것이다.
- ③ 제3세계 특히 미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되는 지역에서 《경제개발》을 추진시켜 약화된 통치기반을 수습하자는 것이다.

국가	인원	연도	인원	연도
남조선	5만명	1960년	6만 5,000명	1961년
남부웨남	3,500명	1951년	50여 만명	1967년
필리핀	1,200명	1954년	5만명	1960년
타이	300명	1959년	3만 7,000명	1967년

아시아에서의 미군증강

이를 위하여 미국은 《태평양공동체구상》(1963.8)을 내놓고 그에 기초하여 일본을 내세우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일《한》의 군사적 결탁을 적극 추진시켰다.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여 《한일조약》체결을 다그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남조선에 조성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친미군부세력을 내세워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강력한 《개발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한데 나갔다.

이것은 미국이 재정경제적위기와 관련하여 저들의 침략무력을 더욱더 늘릴수 있는 가능성이 한계점을 넘어서게 된 조건에서 추종국가들의 힘을 이용하여 저들의 침략야망을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미일《한》의 《반공》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책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여러 가지 핵무기들과 신형무기들을 일본과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전쟁도발준비를 강화해나갔다.

조선인민앞에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반제, 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절박한 요구가 나섰다.

《개발독재》

《경제개발》을 구실로 소수군부집단에 의한 강권적인 지배체제.

1950년대 말무렵 식민지예속경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민족해방운동이 고조되자 미국은 《경제개발》을 통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제3세계나라들에서 수많은 《개발독재》형의 《정권》을 등장시켰다.

《개발독재》는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값싼 로동력을 외국자본에게 제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보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

1)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병진로선 : 1960년대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를 일떠세운 기세로 천리마대전군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의 새로운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주체50(1961)년 9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1961~1967)의 목표를 제기하고 이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또한 4·19인민봉기이후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맞게 북남조선의 힘을 합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루하기 위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함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7개년계획의 주요목표	
공업년평균성장률	18%
전기	330만~350만 kWh
석탄	2,300만~2,500만 t
강철	220만~250만 t
천	4 억~5 억 m
세멘트	400만~450만 t

그리고 반제반미투쟁과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함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이 고조되던 1962년에 이르러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긴장상태가 격화되어 갔다.

*사회주의공업화 :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 특히 자체의 위력한 중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사회주의 공업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끼리브해위기》

미국은 구바의 자위적무력강화를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1962년 10월 23일 유엔을 이용하여 구바에 있는 미싸일철수를 강요하는 한편 183척의 군함과 1,190대의 비행기 등 5개 사단의 무력을 카리브해 지역에 집중시키고 전쟁을 일으킬 위기를 조성하였다.

미국은 구바를 압살하기 위하여 카리브해위기(1962.10)를 조성하였다.

한편 미국은 『한일회담』을 조기타결함으로써 미일 『한』의 『3각 군사동맹』을 조작하고 새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쳤다.

이러한 시기에 현대수정주의자들은 『평화공존』, 『국제긴장상태의 완화』의 간판밑에 제국주의와 타협하고 신흥세력나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외면하는 길로 나아갔다.

조성된 정세는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투쟁력량파의 반제공동행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의에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수호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미제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조성된 큐바 정세에 대한 상보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 대한 신문자료

並進路線은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면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 할수

있게 하는 전략적로선이였다.

회의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방도로서 4대군사로선에 기초하여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밑에 조선로동당과 전체 인민이 병진로선관철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공화국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힘을 돌리면서도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는 전인민적의 길에 떨쳐나섰다.

국방건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러나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는 조건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하여 미국과 경쟁하는 식으로 병력수를 늘이고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할수는 없었다.

이로부터 공화국에서는 4대군사로선에 따라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준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국방력을 강화해나갔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63년 2월 6일 최전연의 대덕 산초소를 찾으시여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면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군대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히시였다.

이 시기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시고 1964년 6월 19일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66년 4월과 그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강진종합군관학교에 나가시여 우수한 군사지휘관들을 많이 키우도록 하시는 한편 인민군군인들을 《일당백》구호관철에 불러일으키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병실과 훈련장을 비롯한 여러곳에 《일당백》의

* 4대군사로선 :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말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1963.2.6)

구호를 새기고 정치군사학습과 군사훈련을 강화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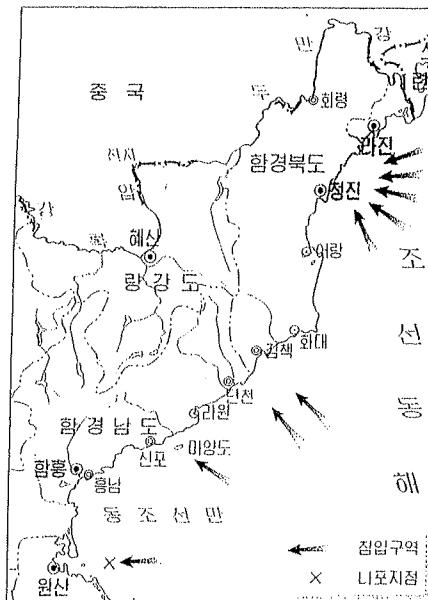
나라의 防衛力を 강화하기 위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사업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지고 짧은 기간에 나라의 모든 지역에 튼튼한 방어시설들이 꾸려졌다.

현대적특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자립적인 군수공업기지들이 꾸려지고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으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전략물자들을 충분히 마련해나갔다.

그리하여 나라의 방위력이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가 확립되어갔다.

*로농적위대(1959.1.14) :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청장년들로 구성된 非常備의 민간무력이다.



《푸에블로》호의 공화국령해침입도



격추되는《EC-121》

결과 공화국은 1968년 1월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고 그 이듬해에는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을 격추함으로써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고수하였다.

경제건설

공화국인민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건설을 충단없이 계속 힘있게 밀고나갔다.

7개년계획기간에 국방건설에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을 추가적으로 돌려야 하였던 조건은 경제건설앞에 많은 애로와 난관을 조성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열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선후차를 가지고 主攻 방향을 명백히 설정하여 분야별로 국가적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분야별로 취해진 국가적조치		
1962. 2	전국수산부문 열성자회의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
1962. 8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 련선회의	축산업을 발전시켜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대책
19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	중공업을 정비보강하고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1963. 3	과학자, 기술자대회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1963. 6	전국국영농목장일군협의회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중공업부문에서는 중공업기지들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마련된 토대를 효과적으로利用하여 경공업과 농업발전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농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태제》(1964.2)에 따라 水利化, 電氣化, 機械化, 化學化를 빨리 완성하기 위한 사업과 농업현물세의 폐지(1966.4)를 비롯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류례없이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나같이 밀고나가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할 높은 목표앞에서도 공화국인민들은 두한한 혼신으로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1964년 11월 개성기계종합공장의 한 작업반에서 리윤식을 등록하고 벌린 증

리윤식을 등록한 작업반에서의 증산운동

리윤식은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가 희생된 서울의 전국대학 1학년 학생이었다.

개성기계종합공장의 한 작업반에서 리윤식학생을 작업반성원으로 등록하고 그의 묾까지 증산하여 그것을 통일된 다음 유가족들에게 보낼 것을 결의하여 벌린 운동이다.

*태제: 이념·사회정치적문제의 본질과 내용, 그 해결의 기본원칙과 구체적방법 등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강령적문헌을 말한다.



리윤식의 이름을 단 선반기



증신운동을 벌리는 롱성기계공장 노동자들

신운동은 전국 각지에 급속히 파급되었으며 여기에는 1965년 2월 현재로 4만 7,114개의 작업반, 2,937개의 직장, 1,422개의 공장이 참가하였다.

공화국은 인민들의 애국적 열의와 투쟁에 의하여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주의 공업화를 향하여 착실히 전진해 나갔으며 내외의 압력과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고히 고수해 나갔다.

2) 자주로선 견지

반제자주로선 천명

1960년대 중엽에 이르러 국내외 정세는 참으로 복잡하였다.

미국은 민족해방투쟁을 고조시켜나가는 사회주의, 신흥세력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아나섰고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았다.

1964년 8월 웨남에서 바크보만사건(통킹만사건)

바크보만사건

미국이 북부웨남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날조한 사건.

『공해상에 있던 저들의 함선이 웨남 인민군에 의하여 공격당하였다.』는 구실 밑에 미군이 1964년 8월 4일 수십 대의 비행기, 구축함을 바크보만에 침입시켜 북부웨남에 대한 함포사격과 기총사격을 가한 사건이다.



바크보만사건

다그쳤다.

조성된 정세는 반제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미국과 싸우고 있는 나라 인민들과 갓 독립한 나라 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며 전세계적인 反帝共同戰線을 형성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침략책동을 막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하여야 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중소론쟁에 의하여 분렬의 위기가 격화되고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과 직접 싸우고 있는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 있는 나라 인민들에게 난관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테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그를 위한 파업과 방도를 밝히시였다.

또한 조성된 정세 속에서 우리의 혁명 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自主, 自立, 自衛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국방건설과 경제 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공화국인민들은 꾸바, 웨남을 비롯하여 미국을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끼리 브하의 위기로 하여 꾸바인민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는 꾸바주체 공화국의 대사이 하류학생들까지 다 총을 매고 함께 싸울 태세를 갖추게 하는 한편 많은 무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군

을 조작한 미국은 막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웨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1965년 6월에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미국은 《3각군사동맹》에 기초하여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반동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사적지원을 보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1966년 10월 웨남에 조선인민군의 한개 공군부대를 지원병으로 보내도록 하시었고 인민들은 경제와 국방을 병진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100만벌의 군복과 10만정의 각종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여 지원하였다.

한편 공화국은 신흥세력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고 뿐력불가담운동의 발전에 많은 힘을 돌리였다.

주석님께서는 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고 반동회의 1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30여개 신흥세력 나라의 국가지도자들을 만나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었다.



웨남을 도와 혁신을 일으키는 락원기계공장

인도네시아방문의 10여일간 주석님의 대외활동을 적극 보좌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신흥세력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대외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공화국은 20여개의 신생독립국가들과 새로 국교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뿐력불가담운동의 모범으로, 승리의 기치로 떠였다.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강화

1960년대 중엽 미국의 침략책동과 현대수정주의의 압력이 더욱 강화되어 공화국을 둘러싼 정세는 매우 긴장되고 복잡하였다.

이러한 시기 난판앞에서 동요하던 일부 사람들은 현대수정주의로선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화국을 수정주의길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부르죠아, 수정주의사상에 물젖은 이들은 천리마운동과 병진로선, 반제반미전략과 조국통일방침을 비롯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외곡하고 그 관철을 극력 방해하였다.

또한 인민들에 대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약화시키고 당안에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불전전한 사상을 퍼뜨려 당과 인민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부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그를 옳게 가리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맹종맹동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부르죠아, 수정주의분자들의 정체를 짚뚫어보시고 그들의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당안의 형편을 해아리시고 1967년 5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소집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부르죠아, 수정주의 분자들의 책동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때 대한 문제 가 토의 되였다.

주석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과 인민의 통일 단결을 강화 할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그를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전원회의를 계기로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등 온갖 불건 전한 사상을 뿌리빼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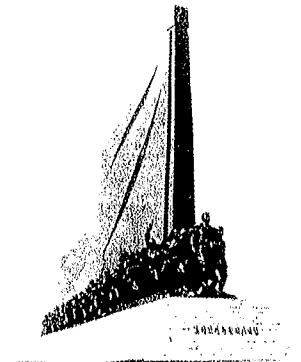
1967년 6월 4일 보
천보전투승리 30돐을 맞
으며 량강도 혜산시에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을 건립한 것을 비롯하여
주석님의 로작과 혁명전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 신문자료

통을 수록한 도서들이 수많이 출판되고
곳곳에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이 꾸
려졌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
업을 통하여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
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고
수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
게 되였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3)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은 1966년 10월에 열렸던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전례 없이 긴장한 정세 하에서 국방력 강화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했던 사정과 관련하여 7개년계획을 3년간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야 하였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날로 격화되는 미국의 세 전쟁도발책동과 전례 없이 방대한 과업 앞에 주저하면서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사로잡혀 일을 대담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일군들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1967년도 인민경제계획 작성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일군들은 노동자들이 결의한 목표까지 출여서 계획을 세우던 나머지 1967년도 공업총생산액을 그 전해에 비해 겨우 6% 증성 시킬 것을 계획하였고 일부 생산지표는 전해보다 낮게 설정하



대고조의 앞장에 선 통성기계공장 노동자들

6월 룽성기계공장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경에 하는 주석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에게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병진로선 편철에서 다시 한번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며 그 앞장에 설 것을 호소하시였다.

그리고 6월말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테 대 합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는 한편 영화혁명을 일으켜 대중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1967년 리종순을 비롯한 유능한 작가, 창작가, 예술인들로 백두산창작단이 조직되고 불과 몇 해 사이에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



2 | 죽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당의 로선을 헐저하
만철하기 위하여 도처에서 철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전국을 혁명전대로 조성하게 하자!

전국을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게 하자!

김일성동지의 신자교서평설에 명처나선 통성기계공장로동자들 명령일까지
신리마봉장치호를 생취할것을 결의하고 신국의 분장, 기업소홀에 호소

1980년 10월 1일
제작 / 제작국 : 대한민국
제작인 : 김기현
제작장 : KBS
제작비 : 10억 원

오직 수령의 의지로 솔직히 행동하며 그이의 주위에
넓게 퍼져 혁명적 대고조의 앞장에서 나가기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킬 데 대한 신문자료

였다

만약 이대로 나간다면
공업화의 과정을 3년간 연장하여도 수행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
서는 로동계급의 힘을 믿
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킨
것처럼 다시 한번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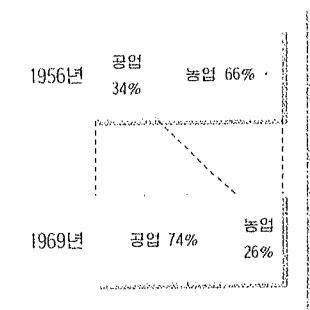
예술영화 『피바다』현지촬영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된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었다.

혁명적 영화들은 병진로선 관철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전국청년총동원대회(1968.4)와 제2차 전국천리마직업반운동선구자대회(1968.5)를 계기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은 온 나라에 속히 타번져갔다.

이 과정에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공화국은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었다.

7 개 년 계 획 의 완 수	공업생산년평균 12.8% 장성
	전력 165억 kwh
	석탄 2,750만 t
	강철 220만 t
	천 4 억 m ³ 이상
	세멘트 550만 t



공업과 농업의 비중

③ 군사독재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 군사독재《정권》과 《한일회담》

군사독재《정권》의 수립

남조선에서 격화되는 민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저들의 아시아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무할 강력한 통치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미국은 남조선군부의 친미반공세력을 부추겨 5.16《군사정

《혁명공약》

- ① 《반공》을 제일《국시》로 한다.
- ② 미국 등 자본주의 나라들과 뉴데를 강화한다.
- ③ 부정부폐를 일소하고 《민족정신》을 확립한다.
- ④ 민생고를 해결하며 《자주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
- ⑤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수 있는 《실력배양》에 집중 한다.
- ⑥ 이 과제가 달성되면 냉심적인 정치가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5.16《군사정변》

남조선에서 격화되는 민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저들의 아

시아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무할 강력한 통치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미국은 남조선군부의 친미반공세력을 부추겨 5.16《군사정

변》을 일으키게 하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등 《국군》의 《행동부대》군인들은 서울로 진출하여 《대통령부》와 중앙방송국을 점령하고 《군사혁명위원회》의 이름으로 《혁명공약》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8일에는 장면《내각》을



서울에 진입한 땅크들

밀어내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개편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최고통치기관으로 내세워 《군정》을 실시하였다.

박정희는 《포고》를 련발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하였으며 《민족일보사》를 습격하여 조용수사장을 비롯한 성원들을 체포하는 등 언론출판기관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6월 10일에는 김종필 등으로 《중앙정보부(KCIA)》를 설치하고 《군정》의 중추적 폭압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군정》의 폭압만행을 법적으로 담보할 《반공법》을 조작하여 《정변》이전에 평화통일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체포처형하였으며 7월부터는 《整軍》의 미명 하에 장도영을 비롯한 군부내의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한 후 박정희는 《民政移讓》의 간판밑에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1962년 3월 《政治活動淨化法》을 제정 공포하여 수천명의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민주공화당》

5.16《군사정변》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제 3, 제 4 공화국》시기의 여당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승공태세를 갖춘다.》는 《강령》을 내세우고 《경제개발》로 그 실력을 육성할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치활동정화법》에 대한 신문자료

*《정치활동정화법》: 《정치의 부정부폐를 일소한다.》는 구실아래 구군사장교, 구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활동을 중지시킨 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성원들

1963년 2월에는 《민주공화당》을 조직하고 《대통령후보》로 나섰다.

《大統領中心制》의 《헌법》에 따라 10월 15일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뿌리면서 온갖 위법행위를 다하였으나 윤보선 등 야당인사 6명과의 대결에서 42.6%의 낮은 득표율로 겨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리하여 1963년 12월 군사독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제3공화국》이 출현하게 되었다.

《한일회담》과 1960년대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웨남에 대해 웨남파병 서는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강화하고 남조선에 대하여서는 일본과 《反共同盟》을 맺게 하여 강력한 전략기지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조선전쟁을 계기로 《高度成長》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저들의 해외진출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하였다.

박정희는 미국의 《원조》가 줄어든 조건에서 일본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발전》을 이루어야만 빙곤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반항과 공화국의 경제성장에 힘을 얻어 더욱 높아지는 통일운동을 무마

《구보따발언》(1953. 10. 15)

《〈한국〉측에서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한 배상을 운운한다면 일본으로서도 일본이 조선의 경제력을 길러준 사실을 자격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의 조선통치는 반드시 나빴던것 만은 아니었고 좋은 면도 있었다.》

시키고 군사《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미 일 《한》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한일회담》은 박정희가 집권한 후 적극 추진되었다.

원래 《한일회담》은 미국의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고 국가를 대표하며 내각수상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제도이다.



《김종필-오히라회담》

전략적 요구에 따라 1951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일본

의 《久保田発言》으로 하여 10년동안이나 끌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정변》직후부터 《〈한일회담〉을 일괄타결할 방침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박정희는 1961년 10월 6차 《회담》을 빨리 결속짓기 위하여 김종필을 《特使》로 내세워 일본과 비밀리에 《회담》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11월에는 박정희와 이께다가 만나 《정치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한일회담》을 빨리 결속지을 것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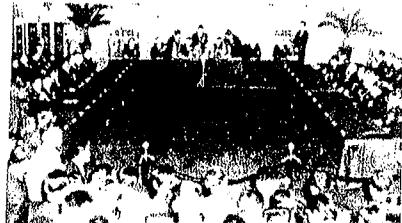
6차 《회담》은 1962년 11월 《김종필-大平メモ》로써 《한》일간의

시기구분	식민지과거청산문제		배상문제	
	남조선	일본	남조선	일본
김승만시기 (1951년 예비 회담~1961년 5차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식민지통치 하에서 조선 인민에게 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謝罪하여야 한다. · 《한일합병조약》은 武力으로 강요하였으므로 無効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관계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 《한일합병조약》은 국제법적 으로 인정되었음으로 有効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시기에 가져온 文化財 및 資源의 遺漏, 징병, 징용자에 대한 보상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다. · 청구권총액으로 8억 US\$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도 남조선에 청구권이 있다. 피해의 실체가 명백하면 반환 및 지불 한다. · 청구권총액은 4,000만 US\$라고 주장
박정희시기 (1961년 6차 회담~1965년 7차회담)	《한일합병조약》은 1910년 그 당시로부터 무효이다.	구조약은 1948년 《한국독립법》의 명목으로 때로부터 무효이다.	《청구권 및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총액 6억 US\$를 요구.	《경제협력》 및 《独立賀金》의 명목으로 제공.

《한일회담》의 기본의제에 대한 대립점

《김종필-오히라메모》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사이에 벌린 비밀메모. 메모에서는 일본이 남조선의 《대일재 산청구권》을 경제 협력으로 바꾸어 10년 동안에 無償供與 3억 US\$, 政府借款 2억 US\$, 商業借款 1억 US\$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메모에 기초하여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일협정》체결

여 중단을 거듭하였으나 《三角軍事同盟》의 실현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965년 6월 22일 《한일조약》과 《한일협정》의 체결로 끝났다.

《한일협정》은 과거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죄행에 대한 사죄와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도 없이 남조선당국자들과 체결된 군사적이고 매큐적인 협정이였다.

《한일협정》을 계기로 《韓日定期閣僚會》(1967.3),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1969.1) 등 상설적 기구들이 조작되었으며 남조선에 일본기업이 물밀듯이 기여들고 《한》일관계는 또다시 치배와 예속의 관계로 되었다.

《브라운각서》

1966년 3월 주《한》미국대사 브라운이 남조선에 전달한 문서이다.

미국은 남조선 《국군》의 웨남 파병대가로 ①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강화한다. ② 웨남전쟁에 참가하는 미군과 남조선 《국군》, 남부 웨남군의 소요물자를 남조선에서 조달한다. ③ 《웨남복구건설》에 남조선기업을 우선적으로 동원하며 남조선물자를 구입한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가장 큰 논문제인 《對日請求權問題》가 타결되면서 보다 적극 추진되었다.

《한일회담》은 서로의 대립과 조선인민 그리고 일본, 아시아인 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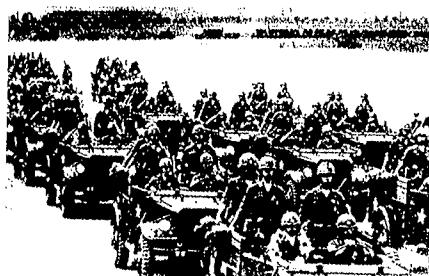
여 중단을 거듭하였으나 《三角軍事同盟》의 실현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965년 6월 22일 《한일조약》과 《한일협정》의 체결로 끝났다.

《한일협정》은 과거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죄행에 대한 사죄와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도 없이 남조선당국자들과 체결된 군사적이고 매큐적인 협정이였다.

《한일협정》을 계기로 《韓日定期閣僚會》(1967.3),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1969.1) 등 상설적 기구들이 조작되었으며 남조선에 일본기업이 물밀듯이 기여들고 《한》일관계는 또다시 치배와 예속의 관계로 되었다.

이 시기 《한일회담》과 함께 미국의 전략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웨남파병이 추진되었다.

미국은 《브라운覺書》를 통하여 남조선당국에 《국군》의 대



웨남파병

대적인 웨남파병을 요구하였고 박정희는 이에 적극 응해나섰다.

1965년 2월 《후방지원부대》 2,000명의 파병으로부터 시작된 웨남파병은 1975년까지 연 31만 2,000명에 달하였으며 남조선은 미국 다음가는 제 2의 파병국이 되였다.

* 이 과정에 《猛虎部隊》, 《白馬部隊》 등이 파병되어 미국의 지휘 밑에 웨누인민들을 살륙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세계적인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수만명의 청장년들이 목숨을 잃었다.

《한일회담》과 웨남파병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는 미일《한》의 《3각군사동맹》체제가 형성강화되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으며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2중식민지로 전락되어 갔다.

박정희는 미국의 《개발독재론》에 따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보다 먼저 《자립경제》, 《조국근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선건설, 후통일론》을 고취하였다.

1961년 7월에는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외화구입과 외자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輸出主導, 低賃金, 低穀価정책으로 《경제개발》을 추진시켰다.

《외자도입법》(1966. 3)

외국자본의 남조선침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에 대하여 5년동안 免稅措置, 土地取得의 優先權, 工場敷地確保 등 각종 특혜를 베푸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웨남전쟁에서 희생된 남조선청장년들

* 《맹호부대》, 《백마부대》: 남조선 《국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이다.

의 자본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1967년부터 추진된 《제2차 5개년계획》(1967~1971)에서는 투자의 40%를 해외에 의존하고 남조선로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거하여 수출을 대폭 늘이였다.

이를 위해 박정희는 《馬山輸出自由地域設置法》(1970),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 등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에게 폭압적인 노동통제를 가하였다.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면서 추진된 남조선경제의 《발전》을 두고 1960년대 후반기부터 《한강변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그 実狀은 달랐다.

1962~1971년까지 외자도입이 연평균 20%씩 증가되어 남조선 경제의 예속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특히 일본《차관》이 급속히 도입되어 일본기업은 남조선의 업종별 시장의 50~100%를 독점하게 되었다.

輸出主導型經濟를 지향하는 반면에 농업에 대한 투자를 전혀



남조선에 들어온 외국독점기업들

《마산수출자유지역설치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외국자본기업에 남조선의 저임금 노동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외국자본기업에 종사하는 남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쟁의를 금지시켰다.

특히 일본기업이 90%를 차지하는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10년 동안 노조결성이 금지되었다.

하지 않는데다가 저곡가정책으로 하여 농업생산률은 2.3%에 머물렀고 매해 50만명 이상의 離農民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투자의 많은 몫이 《국군현대화》와 군사시설의 확장, 《향토예비군》을 비롯한 무력증강에 돌려져 남조선 경제의 군사화가 다그쳐졌다.

또한 외국자본의 《借款》에 기생하여 《新興財閥》들이 생겨나 크게 장성한 반면에 민족자본은 파산 몰락하고 노동자들과 도시빈민들은 최악의 노동조건, 생활조건 속에서 생사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남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1970년 11월에 일어난 《전태일분신자살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案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정책에 대한 불만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여 갔다.



평화시장 여성노동자들



향토예비군

《전태일분신자살사건》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의 계단사 전태일이 동료녀성 노동자들의 극심한 노동조건에 항의하고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여 분신자살(燒身自殺)을 한 사건으로서 그후 남조선에서의 노동운동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되었다.



전태일 사진을 품에 안고 우는 어머니

2) 《한일회담》과 장기집권반대투쟁

《한일회담》반대투쟁

1963년 겨울부터 《한》일사이에 비밀접촉이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갔다.

이러한 데인 1964년 1월 미국무장관 러스크가 도쿄와 서울을 련이어 오가면서 《한일회담》의 결속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남조선당국은 3월 《제3공화국의 운명을 걸고라도 〈한일회담〉을 추진시키겠다.》고 하면서 《3월타결》, 《4월조인》, 《5월비준》 계획을 공포하고 대日《協商》에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즉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에 뛸쳐나섰다.

1963년 이후 정치활동이 재개된 조선에서 정계의 야당인물들과 재야인사 200여명은 3월 9일 《대일屈辱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뭉고 《성토대회》를 열어 《한일회담》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전국에 호소하였다.

3월 24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帝國主義者 및 民族反逆者 模擬火刑式》을 가지고 3.24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국회의사당》과 《중앙청》을 향하여 시위를 벌리였다.(3.24시위)

학생들의 투쟁은 삽시에 남조선의 전 지역으로 퍼지고 여기에



《대일굴욕반대범국민성토대회》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 모의화형식》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일본수상 이케다의 인형과 민족반역자리완용의 인형(김종필을 의미함)을 만들어 불태움으로써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투쟁이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시위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3월 30일까지 계속된 이 투쟁에는 38개 지역의 21만 7,000여 명의 학생들과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바빠맞은 박정희는 도쿄에 있던 김종필을 서울로 불러들여 사태를 수습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정일권을 《총리》로 하는 《한일회담돌격내각》을 내오고 파쑈적 탄압과 회유기만선전, 학원사찰 등 온갖 술책을 다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청년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투쟁은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해나갔다.

5월 20일 서울시안의 대학생들이 가진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및 성토대회》를 계기로 투쟁은 더욱 확대되어 6월 3일에는 《박정희(정권)타도》를 행동강령으로 내걸고 폭력투쟁으로 넘어가 《중앙청》을 점령하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였으며 《青瓦台》에 까지 육박해 들어갔다.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및 성토 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

- ① 일본에 속으로 나가는 매국의 대일굴욕회담을 즉시 중단하라.
- ② 노동자, 농민, 소시민의 피눈물을 맑고 살찌가는 폐판악덕재벌을 처형하고 몰수하라.
- ③ 5.16이래의 온갖 부정부폐 사건을 폭로하고 그 원凶을 조사처형하라.

3.24선언문의 내용

《민족양심세력의 엄숙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독점자본의 교활한 음모를 분쇄하여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새로운 투쟁대열에 합류할것》을 선언함으로써 《한일회담》반대투쟁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반제반파쑈애국투쟁임을 명백히 하였다.



《한일협정》반대투쟁



6.3투쟁을 벌리는 청년학생들

이렇게 되자 박정희는 미국대사 버커와 주《한》미군사령관 하우즈를 만나 밀담을 벌린 끝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5만여명의 병력을 내몰아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을 탄압하였다.(6.3사태)

이후 계속된 《한일회담》반대투쟁은 1965년에 들어와 《한일협정》의 《批准》을 저지시키며 無効化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8월에 《국회》에서 《한일협정》이 강압통과되자 또다시 탄압을 박차고 《협정》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일떠섰다.

박정희《정권》은 《衛戍令》까지 공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였으며 학생운동지도자들과 《한일회담》을 반대한 지식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구금하였다.

3.24~6.3투쟁, 8월투쟁은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전역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투쟁으로서 일본의 재침을 막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반제애국투쟁이었으며 박정희《정권》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이었다.

통일혁명당창건, 장기집권반대투쟁

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새로운 혁명적당을 내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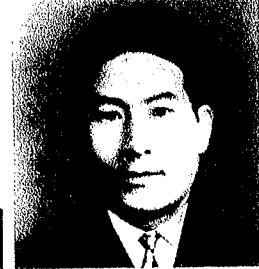
《한일회담》반대투쟁이 고조되는데 따라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지난 기간

의 투쟁에서 교훈을 찾고 투쟁대오를 통

1964년 3월 김종태, 최영도를 비롯한 남조선 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시당위원회, 전라남도당위원회, 경상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도



김종태



최영도

당위원회들을 꾸리고 아래당조직들을 늘리면서 당창건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한일회담》반대투쟁의 실천속에서 대중을 각성시켰으며 겸열된 선진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여 당조직을 확대하고 불과 4~5년동안에 공장과 농촌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까지 조직들을 꾸리였다.

이에 토대하여 1969년 8월 25일 마침내 통일혁명당이 결성되고 당의 선언과 12개조 강령이 발표되었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남조선독재《정권》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박정희의 군사파쑈통치와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다.



통일혁명당강령과 선언

박정희는 《제6대 대통령선거》(1967.5.3)에서 허황한 《경제성장》의 선전과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야당후보 윤보선을 누르고 《재선》되었으며 《제7기 국회의원선거》(1967.6.8)에서는 《비상계엄령》을 공



6.8부정선거증거물

포한 속에서 반대파세력의 활동을 봉쇄하고 투표결과를 날조함으로써 《민주공화당》을 《압승》시키려고 하였다.(6.8부정선거)

통일혁명당조직성원들과 남조선인민들은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부정선거를 반대배격하는 대중적인 정치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6.8부정선거반대투쟁에는 30여개 지역에서 145개의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연 27만여명이나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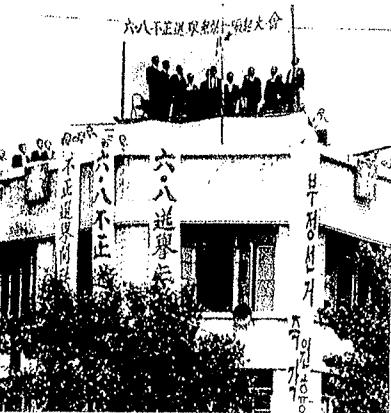
박정희《정권》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공화국과 연결시켜 탄압할 목적으로 《동베를린사건》(1967.7)을 날조하여 윤이상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불법체포하였다. 또한 《통일혁명당사건》(1968.7)을 꾸며내여 김종태, 최영도를 비롯한 150여명의 통일혁



윤이상

《동베를린사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국내외의 지식인 315명이 공화국과의 협정 밀에 1967년 《대통령선거》반대투쟁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감투를 쓰워 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6.8부정선거반대투쟁

명당 성원들을 체포하여 그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선고하였다.

《대통령》이 된 첫날부터 장기집권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 있던 박정희는 《3選改憲》을 강행하는데로 나갔다.

1969년 년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가 《3선개헌》의 의사를 공식 표명하자 야당인사들은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끊고 이에 맞서 나갔다.

《3선개헌》반대투쟁은 6월 1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의 《3선개헌》반대성토대회를 계기로 대중적인 항쟁으로 벌어졌다.

남조선의 55개의 대학들과 37개의 고등학교 학생들 연 15만 7,000여명이 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박정희장기집권반대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진보적지식인들의 대오는 조직화, 의식화되었으며 반파쑈민주화투쟁의 튼튼한 토대로 되여갔다.



《3선개헌》반대투쟁에 나선 야당인사들



《3선개헌》반대투쟁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

* 3선개헌 : 1969년 9월 박정희가 《대통령 3선》을 노리고 강행한 제 6차 《개헌》으로서 《개헌》지지자만을 《국회》에 모여 《가결》시켰다.

4 1960년대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

1) 1960년대 일본의 형편과 재일동포들의 처지

일본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보완하고 그 집행을 대신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일본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960년 1월에 미국과의 新《安全保障條約》을 체결하여 《米日共同作戰體系》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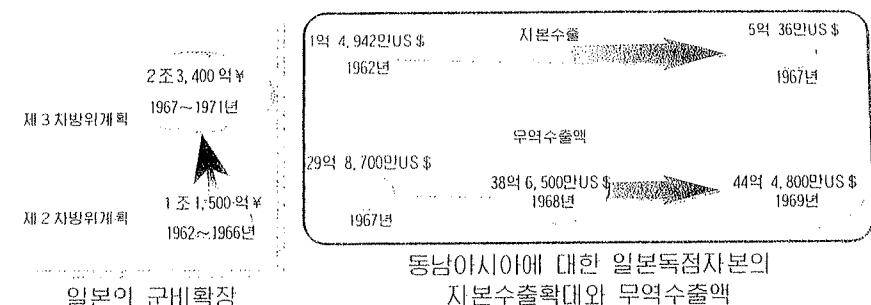
신안보조약의 체결로 미국은 일본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저들의 아시아정책수행에 적극적으로利用할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편승하여 재무장과 해외팽창을 본격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1961년 6월에 《케네디-이케다회담》이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일국교정상화》를 다그치는 한편 《제 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三矢作戰計劃》까지 짜놓고 해마다 군사비를 증가함으로써



신《안전보장조약》체결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

*《미쓰아작전계획》: 1963년 2월부터 6월에 걸쳐 미군의 지휘 하에 일본《자위대》에서 《제 2의 조선전쟁》을 가상하여 작성한 《미일공동작전계획》을 말한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자본수출확대와 무역수출액

나라의 군국화를 촉진하였다.

이와 같은 군국화의 움직임은 警備公安경찰의 대대적인 확대, 현법조사회에 의한 현법개정시도, 사법과 교육의 반동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다.

한편 《所得倍増計劃》의 미명 하에 독점자본중심의 《고도성장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1965년 이후부터는 남조선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진출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고도성장정책》으로 인하여 일본국내에서는 농촌의 過疎化와 공해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經濟大國化가 촉진되는 속에서 재일동포들의 취직의 기회가 증가되고 일정한 생활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나 직업차별, 조선인차별은 계속되었으며 대부분의 동포들이 무권리상태에 놓여



총련중앙회관방화사건

집단폭행을 당한 도꾜조교학생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의 조기타결과 관련하여 재일동포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하고 공화국을 지지하는 동포들에 대하여서는 《治安問題》로 취급하여 정치적 탄압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총련중앙회관방회사건(1960. 6.), 총련 대馬본부습격사건(1962. 2.), 강제련행사건(1963. 5.), 조선학교학생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 등이 일본각지에서 수많이 발생하였다.

2) 《한일회담》반대투쟁

귀국운동을 통하여 동포들의 애국적 열의가 높아진 속에서 1960년대초 조국인민들의 천리마운동에 발맞추어 총련애국사업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모범분회창조운동》이 활발히 조직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모범교원집단창조운동》, 《모범학급창조운동》, 《모범조청반창조운동》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총련조직이 있는 모든 곳에 다 퍼져 전 동포적 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총련분회열성자 제 1 차대회
(1961.10.3)

《모범분회창조운동》

1961년 1월 총련 도쿄도 馬込分회, 江北분회와 오사카부 出城 제 1 분회들이 『조국을 향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들고 《모범분회창조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다. 이 운동은 총련 제 6 차 전체대회후 대중적 혁신운동으로 확대발전하여 336개 분회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64년 5월에 이르러 75개의 《모범분회》를 배출하였다.

그 과정에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애국적 열의는 한층 높아지고 총련조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널원파열의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조국통일정세에 맞게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으며 《민단》과 그 산하단체들과의 공동모임을 가지고 전방제방안지지운동 등 조국통일 운동을 힘 있게 벌리였다.

이러한 시기에 《한일회담》 조기타결을 위한 남조선과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강화되었다.

《민단》은 재일동포들속에서 높아진 민족단합의 기운을 외면하고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한일회담〉타결촉진중앙민중대회》(1962.10.31)를 열고 조기타결을 찬성해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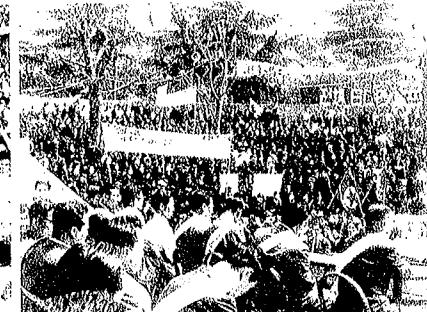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총련은 《한일회담》반대투쟁에로 전체 재일동포들을 불러일으켰다.



전방제방안을 지지하는 동포들의 군중대회

총련과 《민단》의 공동모임

4 월인민봉기 1주년을 전후하여 《민족지상의 널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을 합치자》, 《먼저 일본에서 38도선을 없애고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하자》는 구호밑에 처음으로 재일본조선연론출판인협회와 《재일한국인기자단》사이에 간담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경제인, 문화인, 청년학생 등이 조국통일을 위한 각종 공동 모임을 벌리였다.



4 월인민봉기 1주년기념집회



1964년에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는 연 8,600회 열리었으며 1965년 5월부터 3년동안 각종 군중집회와 가두시위선전에 참가한 재일동포들은 연 192만 4,000여명이나 되었다.

이밖에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투를 반대하며 박정희 《정권》의 웨남파병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폭압 등 매국배족행위를 폭로 규탄하는 선전사업과 군중집회들을 수많이 조직 진행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애국애족의 가치밑에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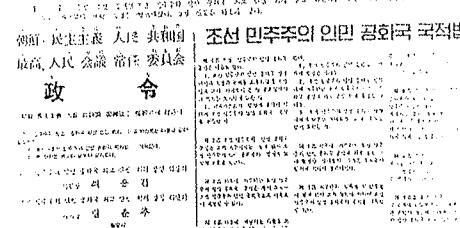
3)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공민권, 기업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일본당국의 공화국 적대시정책을 반대하고公民權과 인권, 생활권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민족권리옹호투쟁은 1963년 10월 9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国籍法》이 제정발포되어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재일동포들의 지위와 권리보다 선명히 한것이 계기가 되여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国籍法를 採択함에 对한 政令 発表



공화국국적법정령을 실은 신문자료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공화국국적법에 규정된 자기들의 공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특히 일본당국이 1966년 1월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재일동포들에게 《協定永住権》申請과 《韓國国籍》을 강요해나서자 이 투쟁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본당국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마치나 안정된 《영주권》이 보장되고 국민건강보험, 생활보호의 수급, 公立小中学校에로의 입학, 장제퇴거요건의 완화 등 여러 《優待》를 받게 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협정영주권》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우대》를 받으려 살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경하는 수속요령에 따라 《협정효력》발생의 날부터 5년이내에 일본당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면 《한국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상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한국국적》으로 바꾸게 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의 품에서 떼여내며 총련을 분렬파괴하자는 것이였다.



《영주권신청》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재일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의 중요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 공화국 창건전에 조선국적을 가졌던 조선 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이 법 발포일까지 그 국적을 가진 사람

- 외국인이 합법적 절차로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

- 부모가 공화국공민인 사람
 공화국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공화국으로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공화국국적을 다시 찾은 동포들

총련은 동포들에게 《영주권 신청》과 《한국국적》 강요책동의 본질과 그 정치적 목적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날이 갈에 따라 총련산하 동포들은 물론 《민단》산하 동포들 속에서도 《영주권신청》과 관련한 불만이 분출되었다.

《영주권신청》의 강요는 재일동포들의 일본재류를 인정한 법률 제126호를 무효화하며 재일동포들을 마음대로 다스릴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총련은 지체없이 조선국적을 되찾기 위한 투쟁으로 동포들을 불러 일으켰다.

동포들은 45개의 도, 도, 부, 현들에 《조선국적으로 고치는 회》를 꾸리고 가두시위와 항의요청투쟁을 벌리였다.

이 투쟁속에서 조선국적을 되찾으려는 동포요청자들의 수는 날을 따라 늘어났으며 그 수는 1966년 말에 2만 6,0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때인 1967년 11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7명의 재일조선인대표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

의에서 발표된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공화국정부가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리익과 민족권리를 철저히 옹호한다는것을 다시금 밝히였다.

이것을 계기로 재일동포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총련대표들

은 공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더욱 힘 차게 떨쳐나섰다.

이 투쟁은 광범한 일본인민들의 지지성원을 받게 되었다.

1970년 6월 일본의 90여개 시를 망라한 전국혁신시장회는 《한국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칠수 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당국은 결국 1971년 2월 22일 재일동포들의 조선국적변경을 지방자치체에서 진행한다는것을 인정한다는 통달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공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협정영주권》신청과 《한국국적》강요책동은 저지파탄되고 오래동안 부당하게 오무라수용소에 갇혀있던 동포들도 구원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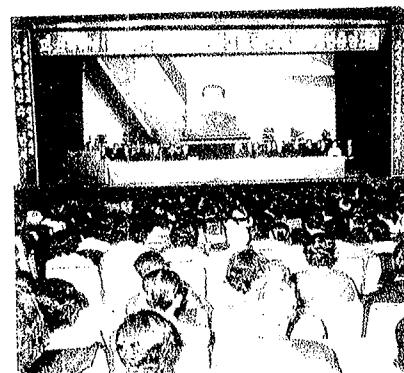
동포상공인들의企業權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졌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同和信用組合탄압사건(1967.12)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일본당국의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에 대한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항의행동과 抗訴, 公判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갔다.

또한 1969년부터 4차에 걸친 일본당국의 집요한 《出入国管理法案》조작동도 강력한 투쟁



동화신용조합에 대한 탄압



《출입국관리법안》조작동을 반대하여 진행된 중앙대회

으로 저지파탄시켰다.

이처럼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총련조직을 강화하고 재일동포들의 제반 민족권리를 지켜냄으로써 애국애족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크게 과시하였다.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일본당국은 《한일조약》체결 직후인 1965년 12월 문부성 차관의 이름으로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교육시설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를 내놓고 조선인학교를 사립학교로서도 各種學校로서도 인가하지 않을 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다른 통달에서도 일본당국은 《영주권》을 얻은자들에 대하여서는 공립학교에로의 입학을 인정하고 수업료, 교육도서, 취학원조조치를 일본인자녀와 동등하게 하며 달리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방자치체들에 하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에 공인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권리를 부인하고 조선인학교를 《비법화》하는 한편 동포자녀들의 《동화》를 촉진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66년 4월 일본당국은 《외국인학교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제51차 通常国会에 《학교교육법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며 1967년 3월에는 《外国人学校法案》을 국회에 상정시켜 성사시키려고 하였다.

《외국인학교법안》의 립법화기도는 1974년까지 무려 7번이나 거듭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의 우익 반동들은 우리 학교 교직원들

《출입국관리법안》

《출입국관리령》을 개악하여 1969년 2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

이 《법안》은 외국인재류활동의 규제, 입국관리직원들이 강제조사, 인권침해와 강제추방하는 권한, 각국의 진보적 정당, 단체 대표들의 일본입국을 엄격히 제한통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법안》의 본질은 공화국을 지지하는 세력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그를 마음대로 강제추방하자는데 있었다.

《외국인학교법안》

총래 지방자치체에 속한 외국인 학교들에 대한 설치인가권과 그 관리운영, 교원의 임명, 교육내용 등을 일본정부 문부대신이 직접 틀어쥐고 간섭하며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것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탄압 말살하고 동포자녀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자는 것이다.

과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과 조선학교 방화사건 등을 련이어 일으켰다.

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은 엄혹한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다.

총련중앙은 1965년 12월 29일에 일본문부성 차관통달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외국인학교법안》의 본질과

부당성을 폭로하는 한편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내용과 그 정당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 이 《법안》의 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동포들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때인 1966년 4월과 11월에 공화국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이 《외국인학교제도》의 창설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탄압하는 것을 규탄하고 그것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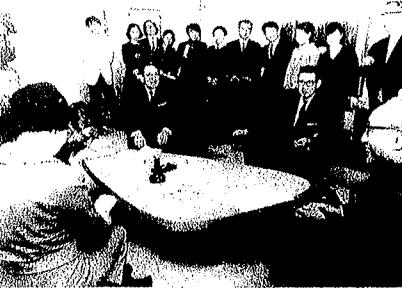
이에 고무된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일본각지에서 군중대회를 가지고 재일조선청소년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일본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피로써 지킨 우리 학교를 누구도



《학교교육법개정안》의 국회상정을 반대하여 총련의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외국인학교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



조선대학교인가를 도꾜지사에게
요청하는 일본문화인들

칠수 없다. 우리 학교를 투쟁으로 지키자!》라고 하면서 강력한 대중요청운동을 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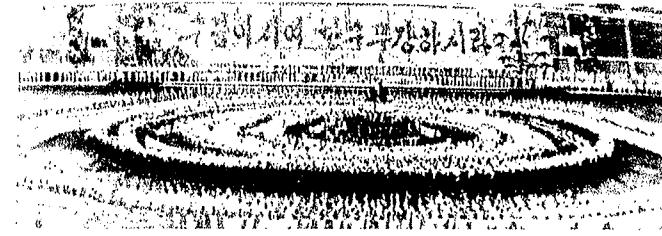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는 1967년 3월부터 1년간만 하여도 《민단》산하 동포들을 포함하여 14만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총련은 또한 집단체조 《조국에 드리는 노래》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공연함으로써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크게 과시하고 일본은 물론 세계교원련맹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과 저명한 인사들의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일본당국의 《외국인학교법안》의 립법화기도는 완전히 파탄되었다.

총련은 민족교육의 합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자주학교들의 《学校法人》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조선대학교의 인가(1968.4.17) 등 1971년 1월 말까지 155개 학교 중 146개의 각급 학교와 27개의 도, 도, 부, 현 중 26개의 도, 도, 부, 현의 교육회가 법적인 인가를 획득하였다. 이처럼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총련조직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고수해 나갔다.



집단체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1965.11.10)

제 5 편)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고 공화국에서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투쟁 (1970—1980)

1 국제적인 《긴장완화》와 조선반도

1970년을 전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동서 간의 랭전 관계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미국의 패권적지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 9월 현재 이미 독립을 이룩한 50여개 나라들이 뛰어난 가담운동대열에 들어와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력량으로 뭉쳐 반제 자주의 입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미국과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어 빠루, 빠나마, 볼리비아,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확대되었다.

웰남인민들은 1968년 1월에 개시한 《레토공세》이후 미군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있었다.

미국은 20만명이상의 병력과 100만US \$의 군사비를 더 보충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계속할수가 없게 되었다.

웰남전쟁을 비롯한 미국의 침략과 전쟁정책은 미국 안



미국에서의 반전평화운동

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反戰平和運動을 불러일으켰으며 서유럽의 동맹국속에서도 반미 반전평화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세차게 벌어졌다.

중국이 무시할수 없는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은 전면적파산에 직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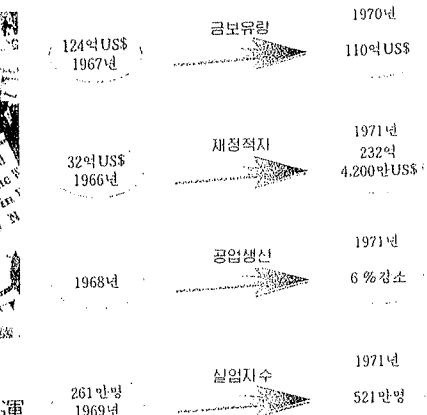
침략과 전쟁, 군비확장경쟁을 통하여 미국은 경제의 침체와 금보유량의 감소로 인한 딸리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해외군사기지와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힘마저 약화됨으로써 그 지위는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게 되였다.

『새 아시아정책』의 주요내용

- 웨남전쟁과 같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의 회피
- 해외주둔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 초대국간의 『핵』문제를 제외한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제국가들자신이 해결
- 일본 등 동맹국의 『자주국방』 노력의 강화와 미국의 『측면원조』

이로부터 미국은 자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며 무너진 아시아정책을 재구축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였다.

1969년 7월 미국대통령 닉슨은 『괌도선언』을 통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긴장을 완화시킬데 대한 『닉슨주의』(새 아시아정책)를 들고나왔다.



미국에서의 경제위기

『새 아시아정책』은 중쏘분쟁을利用하여 『미쏘협조』와 『미중화해』를 이루어 중쏘 량국과 민족해방운동력 양간에 쇄기를 박음으로써 미군의 군사적개입을 손쉽게 하자는데 있었다.

그것은 또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추종국가들의 힘을 동원하여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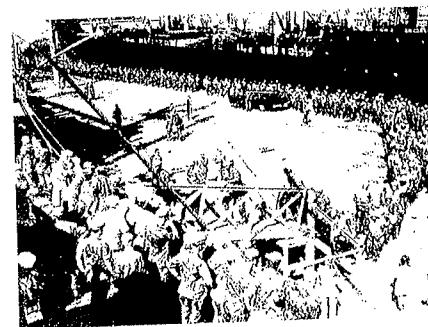
이리하여 미국은 1969년 1월부터 웨남에서 미군철수를 시작하였다.

1972년에는 닉슨이 중국과 쏘련을 떤이어 방문하여 『緊張緩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군사적개입을 더욱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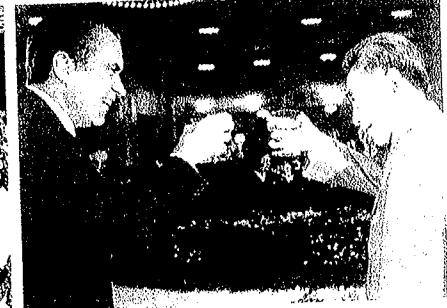
국제적인 『긴장완화』분위기에 편승하여 제국주의세력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보다 강화하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南北問題』가 부각되었다.

중쏘는 이를 묵인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반제적성격이 흐리게 되었으며 민족해방운동앞에는 난관이 조성되었다.

미국은 웨남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새 아시아정책』을 수행하



웨남에서의 미군『철수』



닉슨의 중국방문

*『남북문제』: 지구의 북반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공업국과 남반구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도상국간의 경제격차와 거기서 파생되는 정치, 경제적문제들의 총칭이다.

는에서 조선반도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도 《긴장완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1969년 6월 주 《한》미군의 철수를 말하기 시작하였으며 박정희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나서도록 《독촉》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은 8월 《닉슨-박정희회담》을 통하여 《북의 무력공격에 대하여서는 〈방위조약〉에 따라 단호하게 〈한국〉을 지킨다.》고 공포하였다.

11월 《닉슨-佐藤회담》에서 발표된 米日《共同声明》을 통하여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정책수행에서 일본의 부담과 역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미 일 《한》의 《3각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가로막으려 하였다.

복잡한 국제적환경속에서 공화국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여야 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날로 우심해지는 민족분별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가야 하였다.

- 미일《공동성명》의 주요내용
- 미일이 협력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 《한국》 등 《극동 여러 나라의 안전은 일본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 미일신 《안전보장조약》을 기한이 끝난 뒤에도 계속 《전지》하며 오끼나와의 《시정권》을 《반환》한다.
 - 미일이 《아시아의 경제개발》에 《기여》한다.



《닉슨-사또회담》

2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

1) 혁명위업 계승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강령

1960년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뚫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공화국앞에는 1970년대에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다.

그러나 당시 사회주의길로 나가던 많은 나라들은 공업화를 실현한 다음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겠는가 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경제건설에만 힘을 넣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러한 때인 주체59(1970)년 1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뚜렷이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천명하시였다.

이에 따라 6개년계획(1971-1976)의 기본과업과 3대기술혁명과업, 사회주의문화건설과 사상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

당대회에서는 또 한 1960년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그 교훈에 기초하여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3 대 기 술 혁 명 종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회보고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70. 11. 2)

실현하기 위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강화하며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음흉한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는데 대한 파업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새 아시아정책》에 경각성을 높이며 세계의 이로는 곳마다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파업이 제시되었다.

5차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국방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돌리는 한편 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새 세대의 우수한 일군들을 적극 등용하는 조직적대책을 취하였다.

당대회를 계기로 공화국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조선혁명의 요구를 깨뚫어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1974. 2. 19)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사람과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것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사회주의사회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접령한다는 것을 말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대한 강령이 제시됨으로써 공화국은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확신성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위업계승 문제의 해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화국에서는 혁명위업계승 문제가 더는 미룰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광복전부터 활동하던 항일투사들과 간부들이 고령화되고 새 세

대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실은 혁명위업계승문제의 해결을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세계에는 이 문제를 놓게 해결한 경험이나 리론도 없었을뿐아니라 심각한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71년 6월 24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연설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사로청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또한 1972년 4월에는 세계혁명운동의 심각한 교훈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면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후계자문제를 놓게 해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 시기 공화국인민들의 이목은 1960년대 중엽부터 경애하는 주석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며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로 쏠리였다.

장군님께서는 백두산밀영(량강도 삼지연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혁명투쟁과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날력사에 특기할 수많은 사변들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높은 자질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 1964년 5월 15일 민청 제5차대회에서 민주청년동맹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으로 개칭하였다.(현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사로청 6차대회에 관한 신문자료

과 고결한 성품을 키우시였다.

1960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군사와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쌓으시였으며 청년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품격을 갖추어 나가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신 이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과장, 부부장을 거쳐 부장, 비서의 중책을 지니고 사업하시면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이 나날에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으로 하여 전체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토를 받게 되시였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영명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략력(1942.2~1964.6)

- 1942. 2. 16 백두산밀영에서 탄생
- 1952. 11 만경대혁명학원 편입
- 1953. 8~1954. 7 평양제 4인민학교, 평양삼식인민학교 졸업
- 1954. 8~1960. 8 평양제 1중학교 졸업
- 1960. 9~1964. 3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 1964. 6. 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 시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중요업적
(1964. 6~1974. 2)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 제시
- 부르죠아, 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경애하는 주석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 실현
- 영화혁명을 일으켜 문학예술분야에서 새로운 전면 마련
- 전체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을 병진로선관철에로 조직동원하여 공화국의 위력 강화
- 조국통일사업, 해외동포들과의 사업, 대외사업에서 새로운 전환 마련

지도자동지》라고 부르며 경애하는 주석님의 후계자로 모시고 싶은 자리를 의 절절한 냄원을 담은 편지와 청원서들을 매일과 같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였다.



김일

최현

특히 주석님을 모시고 한생을 일해온 김일, 최현, 오진우, 림춘추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추대할 것을 절절히 제기하였다.

1974년 2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 같은 의사와 냄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고 경애하는 주석님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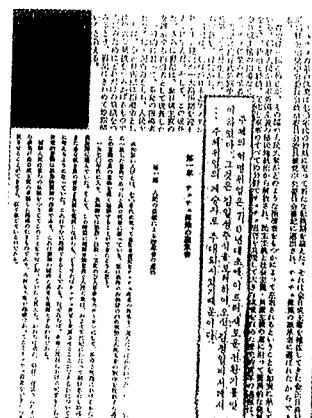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공화국에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오진우



림춘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출판물

2) 3대혁명 적극 추진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현대 과학기술이 기초하여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오랜 간부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 한편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한 청년지식인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운동을 심화발전시켜야 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73년 2월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 하시였다.

이에 따라 당일군들과 청년지식인들로 구성된 3대혁명소조가 광범히 조직되고 공업과 농업부문에 파견되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그후 과학, 교육, 건설, 운수 등 모든 부문에 확대되었으며 3대혁명소조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3대혁명소조

당과 국가의 일군들과 청년지식인들 20~30명으로 구성된 소조.

1975년 5월부터 소조를 당이 직접 소속자로 하게 되었으며 1973~1984년까지 약 10만 8,700여명이 소조원으로서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 파견되었다.



황해제철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3 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여 정치사상적지
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
고 아래 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3
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
는 새로운 형식의 지도방법이
였다.



농촌에 파견된 3대혁명수조원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1975년 11월 《시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 하시였다.

1975년 12월 1일에 검덕광사에서, 그 다음날에는 전사협동농장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과 형식

• 보증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킨 운동으로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이다.

• 형식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매개 단위에서 사상, 기술,
문화분야의 결의목표를 정
하고 조직지해하다.

3 대 혁명붉은기수여기준과
판정요강에 따라 판정하고
평가된 단위에 『3 대혁명붉
은기』를 수여한다.



3 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검덕광산종업원궐기모임

한 사이에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 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3 대혁명
붉은 기쟁취 운동을 당이 직접 틀어
쥐고 지도하며 이 운동과 3 대혁명
소조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3
대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을
높이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내

이 운동의 불길속에서 겹덕꽝산, 청산협동농장 등 수많은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그 대렬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어갔다.

특히 새 세대 청년들이 3대 혁명의 밑음직한 전위로,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났으며 그들에 의하여 혁명파 전설이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보다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대건설과 솔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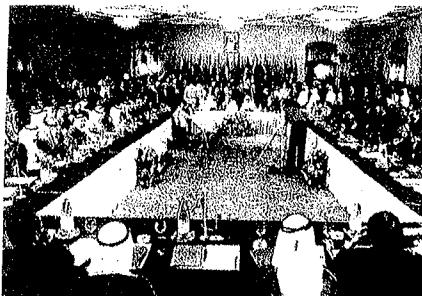
어셨다.

공화국에서는 1971년부터 6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들

6개년계획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운대한 계획이였다.

전기	280㎿~300㎿ kwh
석탄	5,000만~5,300만 t
강철	380만~400만 t
천	5 억 ~ 6 억 m ³
수신율	160만~180만 t
일자	700만~750만 t

공화국정부는 6개년계획의 중심
과업인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작기계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
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자본
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확대 강화함



석유값을 올릴것을 결정한 이집석유수
출국기구회의(1973.10.17)

으로써 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등의 선진기술과 설비들을 적극 도입해 나갔다.

6개년계획은 회천공작기계공장 로동계급이 한해에 공작기계 1만대를 생산하는 등 공화국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첫해부터 커다란 양양과 전진 속에서 수행되어 갔다.

그런데 이 시기 세계를 휩쓴 석유위기와 식량위기로 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경제적으로 혼란과 진통을 겪게 되었으며 그것은 공화국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세계적인 경제파동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

No	10 대 전 맹 목 표
1	전력 1,000억 kwh
2	석탄 1억 2,000만t
3	강철 1,500만t
4	유색금속 150만t
5	세멘트 2,000만t
6	화학비료 700만t
7	전 15억 m
8	수산물 500만t
9	일곡 1,500만t
10	긴식지개간 30만정보

《석유위기》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 전쟁을 계기로 아랍만의 이라크, 쿠웨이트 등 석유생산국들이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하여 석유값을 21%로 올릴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세계가 《석유위기》를 겪게 되었다.

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할데 대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제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1974년 2월 속도전의 방침을 제시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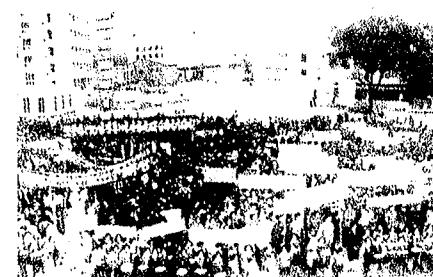
그런데 당시 일군들이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사업을 옳게 짜고들지 못한 결과 공업부문에서 1974년도 계획을 예정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였다.

이러한 사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이해의 년간계획은 물론 나아가서 6개년계획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타개 하며 주석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결심밑에 《70일전투》(10.21-12.29)를 발기 하시였다.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70일전투기휘부가 조직되었으며 능력있는 일군들로 무어진 70일전투지도소조가 전국각지의 중요단위들에 파견되었다.

조세웅, 리찬선을 비롯한 일군들은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현장에서 대중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힘파지혜를 합쳐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다.



《70일전투》를 위한 황철의 종업원궐기모임

본질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속도 기본요구 최단기간에 질량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룩하는 것.

전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것.
기본방도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리는 것.
조직지도사업을 옳게 안만족하는 것.

1974년 2월 속도전의 방침을 제시 하시였다.

그런데 당시 일군들이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사업을 옳게 짜고들지 못한 결과 공업부문에서 1974년도 계획을 예정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였다.

이러한 사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이해의 년간계획은 물론 나아가서 6개년계획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타개 하며 주석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결심밑에 《70일전투》(10.21-12.29)를 발기 하시였다.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70일전투기휘부가 조직되었으며 능력있는 일군들로 무어진 70일전투지도소조가 전국각지의 중요단위들에 파견되었다.

조세웅, 리찬선을 비롯한 일군들은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현장에서 대중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힘파지혜를 합쳐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다.



조세웅



리찬선

전체 인민은 속도전의 가치밑에 《70일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70일 전투》기간 공업생산은 1973년에 비하여 17.2%로 늘어났으며 1974년 11월과 12월의 공업총생산액은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하여 각각 48%, 52%장성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의 공업발전력사에서 최고의 장성속도였으며 이때부터 속도전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7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공화국인민들은 계속하여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를 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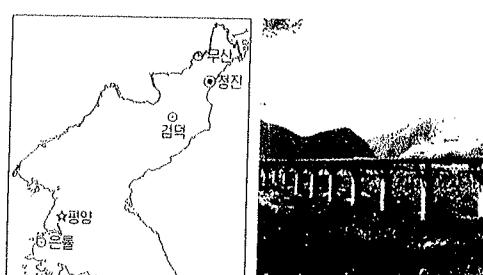
속도전의 불길속에서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18m타닝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를 만들어내고 길이가 4.6km에 달하는 은률광산대형장거리벨트콘베이어와 98km에 달하는 무산-청진사이의 大型長距離精鉱輸送管을 일떠세웠다.

그리고 1,1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6개년계획을 2년이상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당창건 30돐이 되는 1975년 10월 10일전으로 6개년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이어



무산-청진사이의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



당시의 모습

전기 280억 kwh 1975

석탄 5,000만 t 1975.8

증철 400만 t 1976

전 5 억 m³ 1975.6

수산물 160만 t 1975.5

알곡 700만 t 1975

6개년계획 주요목표 달성

주체농법

조선의 기후풍토조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농사를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배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수확을 높이게 하는 농사방법이다.

계획의 주요고지들이 성과적으로 점령되었다.

공업부문에서뿐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異常氣候現象에 대처하여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몸소 농사를 직접 지도하시는 과정에 창조하신 주체농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1973년과 1974년의 알곡생산이 30%이상씩 늘어났으며 1976년에는 800만 t, 그 다음해에는 850만 t의 알곡을 생산하는데 이르렀다.

그밖에도 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1977년 한해에 20만정 보의 밭관개가 완성된것을 비롯하여 수리화채계도 중간 및 산간지대에까지 확대되었다.

사회주의대건설과 속도전의 불길속에서 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공업국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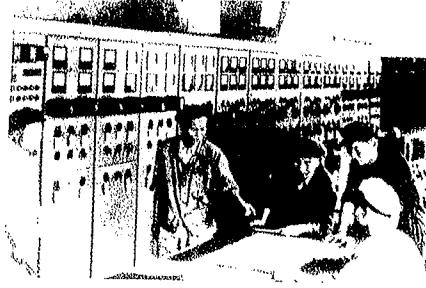
사회주의문화 의 개화발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쳐 나가자면 과학기술과 교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였다.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에 커



주체농법관찰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한 신문보도자료



검덕광산에 파견된《7. 1과학자, 기술자돌격대》

다란 힘을 넣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공화국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것은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기 위한 1960년대의 기술혁명과업과는 달리 기계가 기계를 움직여 모든 생산공정을 自動化, 遠隔操作^{원격 조종}화로 操縱화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업이였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결정적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였다.

또한 이 시기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현실은 공화국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절박한 요구로 내세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가까운 년간에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1975년 9월부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집단이 꾸려져 인민경제 각 부문에 파견되어 실지로 걸린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기 위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이 벌어지게 되였다.

그리고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늘어났으며 평성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

《7.1과학자, 기술자돌격대》(1975.9), 《5.19기술혁신돌격대》(1979.12)(1980년 10월 《4.15기술혁신돌격대》로 개칭) 등이 조직되어 검덕광산과 인민경제 각 부문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6,000여개의 공장, 기업소에 8만여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6만 5,000여건의 기술혁신판제를 해결하였다.

에 과학원이 새로 건설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과학도시가 꾸려진 것을 비롯하여 보다 훌륭한 과학연구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과학기술과 함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었다.

1970년대초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11년제의무교육이 1975년부터 완전히 실시되게 되였으며 1976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제정되어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브람으로 키우는 제도가 법적으로 공고화되었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래제》(1977. 9. 5)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교육망이 확대정비되고 교육의 질적수준이 한층 높아지게 되였으며 100만명이상의 지식인대군이 자라나게 되였다.

이 시기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졌다.

1960년대 영화혁명으로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극혁명을 비롯

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

검 윤 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래제



조선 문화 축제

년도	의무교육의 실시
1956. 9	초등의무교육
1958. 9	중등의무교육
1967. 4	9년제 기술의무교육
1975. 9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

의무교육의 발전



혁명가극《꽃피는 처녀》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1972. 10. 19)

진을 이루하기 위한 사업을 진두에서 지휘 하시였다.

가곡혁명은 1971년 3월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무대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백인준을 비롯한 작가, 예술인들은 4 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피바다》식 가극을 창조하여 1971년 7월에 세상에 내놓았다.

뒤이어 1년 남짓한 기간에 《당의 참된 땅》, 《밀림아 이야기하라》, 《꽃피는 처녀》 등을 창작공연하여 국내는 물론 모스크바, 빠리, 로마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피바다》식 가극의 특징

- ① 가곡의 노래를 節歌化
- ② 방창을 도입
- ③ 무용을 도입
- ④ 흐름식 무대를 도입



백인준

그리하여 1970년대에 가곡과 연극은 물론 음악, 무용, 교예, 미술을 비롯하여 문학 예술의 모든 분야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 되게 되었다.

3)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

1970년대 후반기 급변하는 정세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외정세는 복잡성을 떠나 되였으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었다.

미국은 1975년 2월에 미국대통령 포드가 내놓은 《새 태평양주의》에 따라 남조선을 《前線防衛地域》으로 선포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신형무기와 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새 태평양주의》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기의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며 일본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남조선을 아시아침략의 전략적 자방점으로 영원히 틀어쥐려는 정책이다. 《새 태평양주의》는 《닉슨주의》가 파탄된 조건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직접 동원하여 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판문점사건》

8월 18일 아침 미군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인민군군인들이 관리하는 뽀뿌라나무를 쌍방의 합의도 없이 찍으려 한데 대북-여 비법행위의 중지를 요구한 공화국 경비대원들에게 흥가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1975년 한해에만도 무려 2만 8,150여 건에 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1976년 8월에는 《판문점사건》(《뽀뿌라나무사건》)을 일으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갔다.

미국은 조선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1976년부터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



《판문점사건》



《팀 스파리트》합동군사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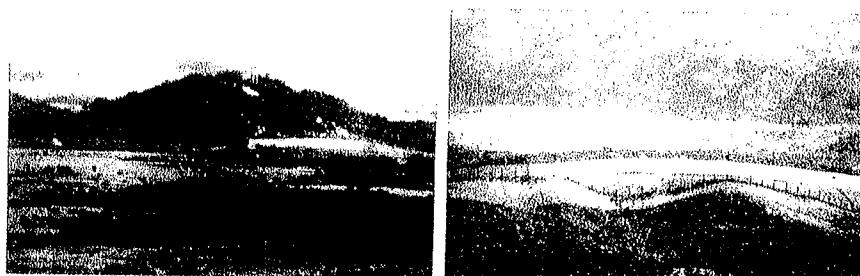
리고 그것을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미국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떠들면서 1977년부터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동서 240km에 달하는 콩크리트障壁까지 쌓아놓고 조선민족을 영구분렬시키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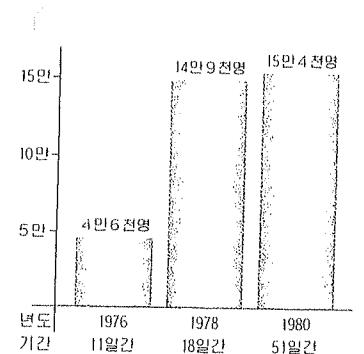
이 시기 국제사회주의운동안에 나타난 支配主義者들의 책동파련이어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로 하여 정세는 더욱 복잡하였다.

지배주의자들은 저들의 로선을 다른 나라들에 내리먹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화국을 비롯한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압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1976년 중국에서는 《4인무리사건》이 일어났으며 마자로, 뿐스까 등 동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반사회주의적 움직임이 로골화되고 있었다.



콩크리트장벽의 일부



《팀 스파리트》합동군사연습
동원수와 기간

급변하는 정세는 공화국인민들앞에 어떤 립장에서 혁명과 전선을 다그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금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을 버리는가 아니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나가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두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공화국인민들은 1978년 1월부터 제2차 7개년인민경제계획(1978-1984)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제2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5·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단히 높이는 웅대한 설계도였다.

미국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그 규모와 내용, 수준에 있어서 일찌기 없었던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78년 1월 1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들을 2차 7개년계획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6차 전원회의에서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모두다

주체화

자기 나라의 자원, 기술로 자체 실정에 맞게 경제를 전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

현대화

기술장비수준을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 수준으로 높이는 것.

과학화

모든 부문의 생산,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옮겨세우는 것.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공화국 창건 30돐을 맞이하면서 《100일전투》(1978. 5. 29~9. 5)를 벌려 1978년도 계획을 완수함으로써 제 2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Photo 40]

당중앙위원회의 편지

공화국은 주체의 길을 따라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영웅적 조선인민의 힘을 다시금 크게 과시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2월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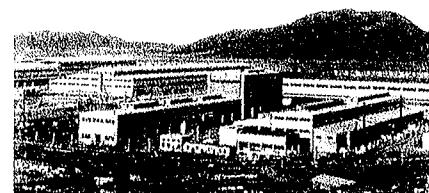
이 구호는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오직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려는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조선혁명의 가치였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선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갈 결심밑에 온갖 난관을 뚫고 제 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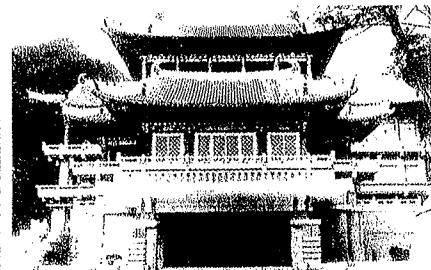
제 2 차 7 개년 계획 의 주요 목표	전력 560억~600억 kwh
	석탄 7,000만~8,000만t
	강철 740만~800만t
	세멘트 1,200만~1,300만t
	수산물 350만t
	일곡 1,000만t



우리식대로 살아나갈대 대한 구호밑에 혁신을 일으키는 로동계급



대안중기계종합공장



국제친선전람관

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港灣建設者들과 船舶工業부문의 노동자들은 해상운수 특히 대외무역발전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해주항, 남포항 확장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쳤으며 자동화, 원격조종화된 무역짐배 《연풍》호, 《두만강》호를 진수한데 이어 1979년에는 1만 4,000t 짜리 《대홍단》호와 2만t 짜리 《압록강》호를 바다에 띄웠다.

건설부문의 노동자들도 전국의 힘 있는 지원밑에 《국제친선전람관》, 대안중기계종합공장 등 이르는 곳마다에 記念碑的 창조물을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1978년에 공업총생산액을 그 전해에 비하여 117%, 1979년에 다시 115%로 장성시키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농업부문에서도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1979년에 900만t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전망계획의 3년분과제를 1980년 9월 말까지 넘쳐수행하였으며 우리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선식사회주의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갔다.

년도	기념비적창조물
1978. 8	국제친선전람관
1978. 9	평양~원산고속도로
1979. 11	청년회학련합기업소
1980. 3	평양산원
1980. 9	대안중기계종합공장
1980. 3	창광원
1980. 3	창광거리 1계단

4) 조국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누쟁

조국통일 3대원칙 1970년대초 미국의 《새 아시아정책》과 국
제적인 《긴장완화》의 분위기속에서 조선
반도에는 북남대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의 조성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71년 8월 6일 《미제를 반대하
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라는 력
사적인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
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협의할 의
사가 있다는것을 밝힌 새롭고 폭넓은 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이 제시된 후 민족의 높아가는 통일기운과 협상방침을
받아들일데 대한 내외의 압력에 못 이겨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
대화에 응해 나섰다.

이리하여 1971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북남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北南赤十字会談이 분단이후 북과
남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앉아 민족내부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는것을 고려하여 일군들이 적십자회담에 성의있게 참가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나 남조선당국의 련락대표를 평양에 오게 하여 통일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때부터 북남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과는 별도로 비밀리에
고위급정치회담을 위한 련락대표들의 접촉이 진행되였다.

이 접촉과 합의에 따라 北南高位級会談이 1972년 5월 2일부
터 5일까지 평양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1972년 5월 3일 북남고위급회담에 참
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간 남측대표를 만나시고 조국통일 3대원칙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을 천명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
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념원을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였다.

하기에 남측대표 리후락은 석상에서 이 세가지 원칙을 통일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고 나갈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북측대표 박성
철이 서울에 갔을 때 박정희도 3대원칙을 통일의 현장으로 알고
지켜나가겠다고 하면서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

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공동성명이 평양
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은 해내외 전체 조선인민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
영을 받았으며 세계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공동성명전문을 실은 남조선신문자료

공동성명은 북과 남이 처음으로 다같이 확인하고 그대로 집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민족공동의 통일 강령이었다.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

파 박정희《정권》은 리후락, 김종필을 내세워 《남북관계는 대화없는 대결로부터 대화있는 대결로 이행한데 지나지 않다.》, 《남북 공동성명에 과대한 기대를 걸지 말라.》고 하면서 북남적십자회

이 시기 외교적성과

- 1973년 7월 현재 57개 나라들과 외교관계 수립(1973년에 13개 나라)
- 1973년 4월 28일 제112차 국제 의회동맹총회에서 공화국의 가맹을 승인
- 1973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 제26차총회에서 공화국의 가맹을 승인
- 유엔에 상주대표부 설치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저들의 의도와는 달리 통일열기가 급 속히 높아지는데 불안을 느낀 미국

남조선은 《남북관계는 대화없는 대결로부터 대화있는 대결로 이행한데 지나지 않다.》, 《남북 공동성명에 과대한 기대를 걸지 말라.》고 하면서 북남적십자회 담판과 북남조절위원회 사업을 지원과 탄생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이러한 속에서도 공화국정부는 북남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1973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28개 나라들에 특사, 대표단을 보내여 대외활동을 활발히 벌임으로써 남북공동

성명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 나갔다.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으로 설정하여 어떻게 하나 전략적목적을 실현해 보려는 미국과 북남대화를 《정권》의 유지에만 이용해 보려던 남조선당국자들은 1973년 6월에 그 본심을 드러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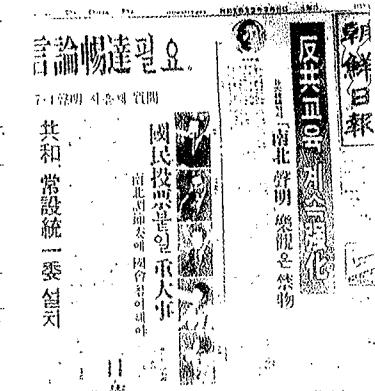
1973년 6월 23일 박정희는 마침내 《유엔同时加入案》과 《交差承認》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두개 조선》정책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이것은 공동성명의 제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북남대화를 거부한 대화포기선언이었으며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분열선언이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박정희가 《특별성명》을 발표한 그날 오후에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역사적연설에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

- 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 ②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작과 교류의 실현
- ③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 ④ 고려련방공화국의单一国체에 의한 헌법제 실시
- ⑤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공동성명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배반행위에 관한 신문자료

조선》정책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 5대방침을 실현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나갔다.

7월 24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대민족회의를 빨리 소집할데 대한 호소문을 채택발표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대민족회의 또는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분열을 막고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조미회담을 통하여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1974년 3월 25일 공화국최고인민회의 이름으로 미국회에 보냈다.

공화국정부는 특히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유엔동시가입안》을 유엔총회에 상정시키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렸다.

그리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세계각국에 널리 선전하며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폭로하는 일대 정치선전공세를 벌려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에 있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공화국측의 제안이 압도적다수로 찬성채택되었다.

조국통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는 유엔에서뿐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서 힘있게 울렸으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현대성운동이 전세계적범위에서 전례없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분렬로선에 대한 통일로선의 승리를 의미하였으며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시로 되었다.

③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1) 《유신》독재와 《중화학공업화》

《유신》독재의 수립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진장완화》의 정세 하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은 저들의 통치를 합리화하던 《반공》, 《안보》의 명분을 잃고 혼란에 빠져들었다.

1971년 4~5월에 진행된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기 국회 의원선거》에서 박정희《정권》은 류례없는 협잡선거로서 수백만표의 부정표를 조작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공약을 내세우고 《신민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선 김대중에 비해 겨우 8%를 더 얻었을뿐이였다.

《선거》결과보다 더 심각해진 것은 생존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련이어 일어난 것이었다.

계다가 《민주공화당》안에서도 파벌싸움이 표면화되었다.

박정희는 이로부터 초래된 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면서 《유신》독재체제를 수립하는데로 나

1970년대초에 일어난 각종 투쟁

- 《전태일분신자살사건》(1970. 11. 13)
- 《사법파동》(1971. 7. 28)
- 广州團地 3만여명주민들의 폭동(1971. 8. 10)
-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대학민주화선언운동(1971. 8. 23)
- 실미도 공군특수부대의 반란사건(1971. 8. 23)
- 韓進商事로동자들의 본사건물방화사건(1971. 9. 15)
- 연세대학교 등 학생들의 《군사교련》반대투쟁(1971. 9. 28)
- 강원도 천주시 기독교신자들의 초불시위(1971. 10. 5)

갔다.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를 뒤받침하기 위하여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여당 단독으로 조작한데 이어 100여건의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문》이라는 것을 내놓고 《10月維新》을 강행하였다.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헌법》조항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모든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각 대학들이 폐쇄되었다.

《비상계엄령》으로 인민들과 언론계, 야당계의 손발을 얹어매놓은 박정희는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유신헌법》을 조작해낸 후 이 《헌법》에 기초하여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선거》를 하였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의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제한할 수 있는 《전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이다.

《대통령특별선언문》

《비상계엄령》선포, 《국회》해산, 《헌법》조항들의 효력정지, 언론, 출판, 집회, 시위금지, 각 대학들을 폐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의 책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총체육관에서의 《선거》



《유신헌법》의 조작공포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제 1 차회의에서 박정희가 제 8 대 《대통령》으로 됨으로써 악명높은 《유신체제》가 꾸며지게 되었다.

《유신체제》는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말살하는 박정희의 1인파쑈독재체제이며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분열체제였다.

《유신체제》를 수립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기둥으로 하는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1974년 1월부터 《긴급조치 1~9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폭압조치들을 연발하면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였다.

특히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김대중립치시건(1973. 8), 《만학련》사건(1974. 4)을 비롯한 각종 사건들을 날조하여 애국자와 민주인사들은 물론 집권층내의 반대파들까지 마구 체포, 투옥, 학살하였다.



김대중의 기자회견

각종 날조사건

년도	사건명
1974. 2	서해간첩단사건
1974. 2	문화인 및 지식인 간첩단사건
1974. 3	울릉도거점 간첩단사건
1974. 4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
1974. 6	동해사건
1975. 8	8. 15저격사건
1975. 11	학원침투간첩단사건

한편 박정희《정권》은 《승공》, 《멸공》의 간판밑에 1975년 7월에 『전시체제 4법』을 꾸며내고 인민들속에 북남대결의식과 적대감을 고취하였다.

이리하여 《유신체제》아래서 남조선은 살기 어려운 파쑈의 광란지대로 전변되었다.

《중화학공업화》와 《새 마을운동》

1970년대초 세계를 휩쓴 《석유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나라들의 經濟不況은 장기화되었으며 경공업수출위주의 남조선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

특히 미국이 保護貿易政策을 강화해 나가자 수출의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남조선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였다.

또한 당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은 금융과 류통, 정보부문에 힘을 넣으면서 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부 중화학부문의 설비들을 발전도상나라들에 들이밀었다.

한편 거액의 외국《차관》에 기초하여 실시해온 《근대화》의 모순이 분출되어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감정은 극도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배경밑에서 박정희《정권》은 미군감축에 따르는 《자주국방》을 실현하며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過剩中화학설비들을 끌어들여 重化學工業 위주의 경제를 건설하려 하였다.

박정희《정권》은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81)기간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며 수출을 늘이되 수출제품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1971년의 19%에서 60%로 높일것을 목표로 제기하고 《중화학공업화정책》을 강행하였다.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73년 1월 《중화학립국선

*《전시체제 4법》(1975.7.9) : 《사회안전법》, 《민방위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개정》이다. 이것은 남조선사회를 더욱더 군사화, 파쑈화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언》을 발표하고 이어 《중화학공업화추진위원회》와 《대통령》직속의 《중화학기획단》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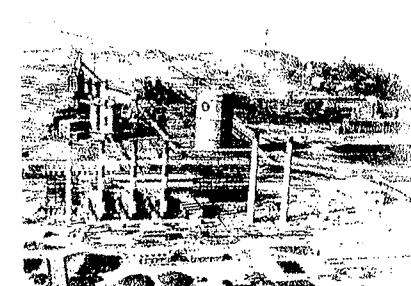
그리고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造船, 전자부문을 《6대전략업종》으로 규정하고 중화학공업을 맡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財政金融, 租稅면에서 특혜적조치를 취하면서 포항, 청원 등지에 大規模工業團地를 건설하였다.

남조선경제는 외국자본에 더욱 예속되어 갔으며 《정부》의 특혜를 받은 삼성, 현대, 렉키, 대우 등 재벌들의 독점체제가 더욱 강화된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압박과 남조선당국의 세금수탈로 하여 절식상태에 빠져들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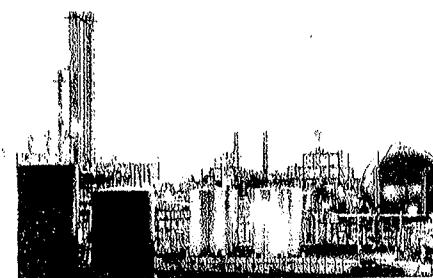
특히 《중화학공업화정책》수행에 투자된 재정의 70%에 달하는 자금이 《자주국방》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방위산업의 기간부문육성에 돌려졌고 나머지도 《고속도로》건설과 항만건설 등 전쟁준비와 관련되는 부문에 투입되었다.

또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이 크게 미달되어 농업생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심해짐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흘러들어 실업자문제를 놓고 도시빈민층을 형성하였다.

박정희《정권》은 농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이미 1970년부



포항공업단지



울산석유화학공장

외국자본의 독점을

- 精油공업 100%
- 합성수지 100%
- 팔프공업 100%
- 전력공업 80%
- 세멘트공업 65%



『새 마을운동』과 관련한 신문자료

터 《勤勉, 自助, 協同》의 간판 밑에 농민들의 생활수준과 생활환경을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시작한 『새 마을운동』을 더욱 추진시켰다.

이 『운동』은 『유신정권』에 의하여 점차 정신동원 운동으로 성격이 변질되어 나가면서 파쑈통치의 수단으로 되였다.

결국 『새 마을운동』은 농민들의 생활처지를 더욱 악화시켰고 『유신정권』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불만을 증대시켰다.

2) 『유신』독재반대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유신』독재반대투쟁

『유신』파쑈독재수립 이후 남조선인민들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김대중 학살 사건』을 계기로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 과대학 학생 300여명은 교정의 『4.19 학생의 거탑』 앞에 모여 박『정권』의 타도와 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경찰의 탄압을 박차고 완강한 簡城鬪爭을 벌렸다.

이를 기회로 12월까지 근 3 달동안에 남조선전역의 58개 대학

『새 마을운동』

1971년부터 추진한 이 운동은 남조선의 1만 6,600여개의 부락마다 『명예경찰관』의 권한을 부여 받은 『새 마을 지도자』들이 배치되어 『遵法精神생활화, 告發精神고취, 자체방위, 한시간 더 일하기, 지붕잇기, 농촌질확장』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운동이였다.

이 운동을 추진한다고는 했으나 농업기반의 정립, 농민들의所得増大, 債務의 解消 등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과 13개의 고등학교 학생 연 10만 5,000여명이 반『유신』시위 투쟁에 뛸쳐나섰다.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 합류해 나선 정계와 사회계의 각계 인사들은 여러 가지 호소문, 성명 등을 발표하고 반『정부』 시위 투쟁을 조직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23일 함석현, 장준하, 백기완 등이 『개헌 청원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불과 10여 일 만에 30만 명의 서명을 받자 박정희『정권』은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2호』를 내려 『운동본부』의 인사를 구속, 련행하였다.

반『유신』 독재 투쟁의 앞장에 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1974년 3월 통일적 투쟁 조직인 『전국 민주 청년 학생총련맹』(민학련)을 결성하고 그의 지도밑에 투쟁을 더욱 조직적으로 벌려나갔다.

4월 3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집회를 가진 다음 『(유신) 독재 물러가라』 『(유신) 헌법 폐지하고 민주 헌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항쟁의 거리로 달려나갔다. 이 날 남조선 전 지역에서 일시에 수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박정희『정권』은 『민학련』의 투쟁을 구실로 남조선의 모든 반파쑈 민주 lực량에 대한 전대미문의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탄압하였다.

그러나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물론 울산 조선소로동자들의 폭동(1974. 9.),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발표와 파업 투쟁(1974. 10.), 『민주구국선언』의 발표(1976. 3.)를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은 여러 가지 형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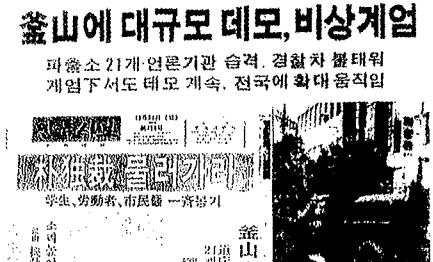


10월민주항쟁에 나선 청년학생들
태로 출기차게 벌어졌다.

1979년 3월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등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을 결성하고 민주주의, 민족통일, 평화투쟁을 활동 강령으로 뚜렷이 밝힘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범국민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였다.

YH무역회사 로동자들의 투쟁이 도화선이 되여 시작된 민주화투쟁은 10월 16일과 17일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의 수천명 학생들이 벌린 반《정부》투쟁을 계기로 마산, 서울,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 파급되었다.

각계각층의 민주력량도 새로운 《민주헌법의 제정》과 《민주정부의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반《유신》독재투쟁에 대한 남조선
신문자료

《민주구국선언》의 기본내용

- 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진급조치》의 철폐
- ② 투옥된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의 석방
- ③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보장
- ④ 《유신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정치》의 회복
- ⑤ 《사법권》의 독립

특히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민족통일》을 저희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하여 리용하거나 저지한다면 이는 혁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정희사살사건

박정희가 제거됨으로써 《유신》독재체제는 일대 혼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 민주화투쟁의 온길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광주인민봉기

《박정희사살사건》이후 조성된 정세 하에서 《유신》잔당과 민주세력 사이의 대결과 투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이루려는 기운이 더욱 높아지는데 당황한 미국은 《유신》잔당의 두목인 전두환을 내세워 보다 강경한 군사파쑈 《정권》을 조작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1979년 12.12 쿠데타 정변》을 일으켜 군권을 틀어쥔 전두환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보안사령부》를 거점으로 군사파쑈 통치에 장애로 되는 세력을 모조리 없애기 위하여 전례없는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유신체제》와 그 잔당들을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또다시 떨쳐나섰다.

청년 학생들은 1980년 3월부터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벌려오다가 5월 1일부터는 《계엄령해체》, 《유신잔당퇴진》, 《전두환퇴진》 등의 구호를 들고 투쟁을 확대 발전시켜 나갔다.

4월 21일 남조선 강원도 정

朴正熙대통령 逝去



『박정희사살사건』을 실은 남조선과 일본 신문자료

鄭昇和戒嚴사령관 運行



《12.12 쿠데타 정변》에 대한 남조선신문자료



5. 17 폭거에 대한 《한국일보》자료

이 투쟁에 당황한 전두환은 5월 17일 남조선 전 지역에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정당, 《국회》의 활동 등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켰으며 주요도시들에 30만명의 《계엄군》을 배치하여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가로막아나섰다.

파쑈적인 5. 17 暴擊는 마침내 대중적인 인민봉기를 폭발시켰다.

5월 18일 전남대 학교 등 광주시내 청년학생들은 《비상계엄령》의 해체를 요구하여 시위에 떨쳐나섰다.

전두환이 《계엄군》을 내몰아 아주적인 탄압을 가하자 학생들은 《비상계엄령 해체하라》, 《유신체제 철폐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폭력투쟁으로 넘어갔다.

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합류함으로써 봉기는 온 광주땅을 휩쓸었으며 봉기군중의 수는 며칠 사이에 무려 30만명에 이르렀다.

5월 21일 봉기군중은 손에 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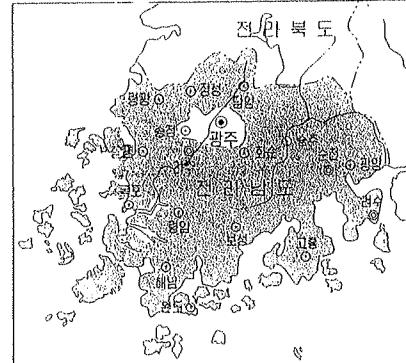
봉기에 나선 청년학생들



봉기에 나선 광주시민들

선군의 동원 탄광 7,000여명
로동자들이 일으킨 폭동 이후
대학생들의 투쟁은 남조선
전 지역으로 파급되었으며
5월 14일과 15일에는 16만
여명의 학생들이 투쟁에 참
가하였다.

4.19인민봉기를 방불케 하는



광주인민봉기력도

잡고 《계엄군》을 몰아내고 시내를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계엄군》의 공격으로부터 10여일간이나 광주시내를 완강하게 지켜냈다.

봉기는 전라남도의 대부분지역과 전라북도에까지 파급되었으며 목포, 리주, 화순, 영암, 담양을 비롯한 17개의 시, 군을 봉기군이 장악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가자 전두환은 5월 27일 미국의 조종밑에 비행기와 땅크, 장갑차 등과 중무장한 7만여명의 군대를 내몰아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류혈적인 탄압만행을 감행하였다.

1,500여명이 학살되고 1만 4,000여명의 인민들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2천 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체포되었다.

광주는 《피의 도시》, 《죽음의 도시》로 변하였으며 광주인민봉기는 무참히 진압당하였다.

광주인민봉기는 군부독재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큰 규모의 대중적 무장항쟁이였다. 류혈적인 탄압을 겪는 과정에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군부와 그뒤에 숨은 미국의 본성을 똑똑히 보게 되었으며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광주인민봉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선신보》자료



희생자들앞에서 풍곡하는 광주인민들

1) 1970년대 일본의 형편과 재일동포들의 처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닉슨주의》의 성공을 위한 열쇠가 미일협력관계의 강화에 있다고 보고 일본의 역할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의 《새 아시아정책》수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나설 것을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1970년대를 《태평양의 시대》, 《아시아개발의 10년》으로 규정하고 그를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정부는 1969년 11월의 《닉슨-사또회담》이후 대내적으로는 《자주국방구상》이라는 것을 내놓고 미일신《안정보장조약》의 자동연장(1970. 6.)과 沖繩의 施政權返還(1972. 5. 15.)을 계기로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3각군사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긴장완화》분위기에 편승하여 중일국교 정상화(1972. 9.)를 실현하는 한편 《경제대국에 상응한 주도적 역할》, 《아시아경제개발에 기여》한다는 미명 하에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원조》와 《협력》을 통한 대대적인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971년의 国際通貨基金(IMF)체제의 붕괴, 1973년의



오키나와의 《반환》에 관한 신문자료



신《안정보장조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신문자료

《석유위기》로 인하여 일본의 《고도성장정책》은 파탄되고 새로운 구조적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경제의 후퇴와 《狂乱物価》,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증대 등 여러 사회적 모순들이 분출되었다.

1970년대 미국의 《새 아시아정책》에 추종한 일본정부는 공화국적대시정책에 기초하여 반총련선전과 정치적 탄압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여러 방법으로 동포들을 동화시키려고 하였다.

광복직후부터 조성된 민족차별적인 사회환경과 구조는 이 시기 더욱 심화되어 갔으며 재일동포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재일동포들속에서는 세대교체가 급속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동포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확대되고 일정한 경제생활기반이 마련되어 상공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본定住化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의 동화교육을 받고 자라난 새 세대들속에서는 일본인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귀화》, 《국제결혼》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속에서는 일본의 취직차별을 반대하는 재판 등 여러 형태의 운동이 벌어졌다.



다나까의 중국방문



《광란물가》, 기업도산에 관한 신문자료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는 재일동포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맞게 애국애족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는 것이 절박하게 요구되었다.

2) 애국애족운동의 계승

조선사람되찾기운동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포사회에서 늘어나는 동화현상을 막고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문제는 재일동포들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로부터 총련은 제9차 전체대회 이후 동화현상을 막고 민족적 주체성을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세워나갔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통찰하시고 1972년 8월 18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원들과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총련은 모든 기관, 모든 단위들에서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을 힘 있게 벌리었으며 1973년에만도 4,130호에 1만 4,848명의 미조직 동포들을 찾아내여 그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은 분회를 강화하는 사업, 짧은 상공인협의회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었다.

총련은 각계각층 동포대중파의 사업을 보다 대담하고 폭넓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분회열성자 제13차대회(1976. 5.)를 열고 분회 강

화를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 한



조선사람되찾기운동



분회열성자 제13차대회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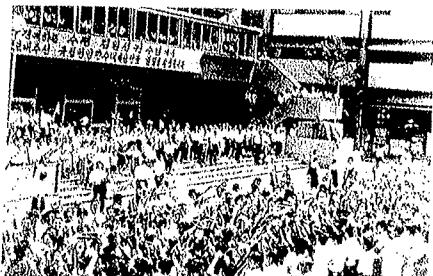
편 1976년 5월부터 분회소조운동을 벌려나갔다.

이와 후-께 1970년 8월에 열린 《재일본조선 짧은 상공인들의 모임》이후 짧은 상공인협의회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서 조직밖에 있었거나 연계가 깊지 못했던 짧은 상공인들이 이 운동에 광범히 망라되었다.

결과 수많은 짧은 동포들이 총련분회장, 상공회, 교육회역원으로 나서게 되었다.

총련은 1972년 8월 오끼나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일제에 의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박해와 강제연행에 대한 진상조사활동과 해설선전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하였다. 그밖에도 민족학급과 하기학교 등 비정규교육망을 널리 조직운영하였으며 성인교육사업, 민족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성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1973년 7월에 만수대예술단을 일



민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환영모임



금강산가극단 결성모임

본에 보내주시고 금강산가극단(1974.8.29)을 무어주신것을 계기로 총련에서는 문학예술을 통한 선전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적극 밀고나갔다.

지방가무단들도 지부, 문화사무소, 학교운동장, 동포들의 집 등을 무대로 삼아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총련에서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갔다.

조청조직과 민족교육의 강화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내외 반동들의 모략선전과 총련파괴, 민족동화책동이 더욱 우심해진 환경에서 재일조선청소년들을 굳게 끓여세워 그들을 애국운동의 계승자로 훌륭히 준비시키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1974년 8월 《8.15^자^격事件》을 꾸며낸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사건을 총련과 혐의시켜면서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한편 《재일조선인민주화촉진련맹》(《조민련》)을 꾸며내여 총련내부를 분렬와해시키려고 하였다.

일본당국은 《椎名メモ》(1974)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청년들과 교육일군들에게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74.9.24)

이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새 세대 동포들에 대한 민족동화책동을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벌리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헤아리시고 1974년 9월 24일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자라나는 동포자녀들을 애국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히시었다.

총련은 세 세대들을 애국운동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총련조직과 일군들을 조청조직들과 동포청년들과의 사업에 조직동원하였다.

조청은 조청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주석님의 1974년 9월 24일교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재일조선청년들이 주체의 세계관을 세우며 시대와 조국, 재일조선인운동앞에 자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선청년찾기소조운동》, 《2만명조선청년담화운동》, 《조청의 5개고지점령운동》 등 군중적 운동을 힘 있게 벌려 수많은 청년들을 새로 조청조직에 묶어세우고 조청지부와 반을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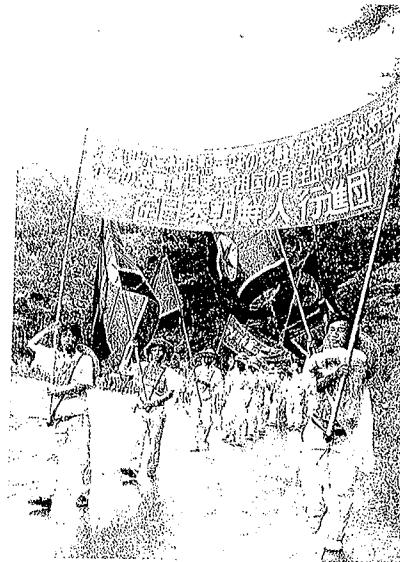
그리하여 45개의 지방본부와 250여개의 지부, 1,000여개의 반들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다.

재일조선청년들은 1975년에 진행된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500만명서명운동, 1976년에 진행된 조국통일축진, 분회강화 3개월운동, 1979년에 진행된 조국통일축진 전민족대회 실현을 위한 오사까-도쿄간 대행진 등 조국통일사업을 비롯한 제반 애국사업을 앞장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 조청조직은 보다 튼튼히 꾸려지고 그 역할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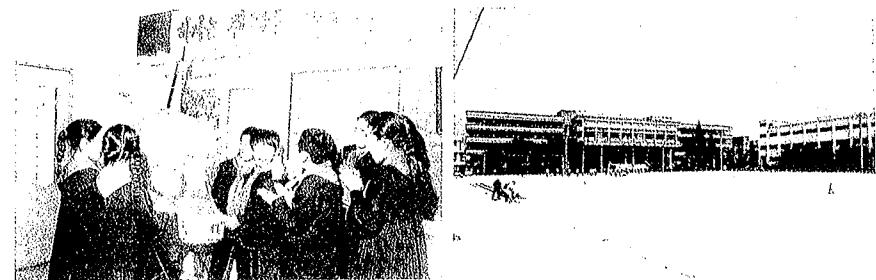
총련은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사업에도 큰 의의를 부여하고 경애하는 주석님의 1973년 8월 31일 교시관철에로 교육일군들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교수교양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한편 모범창조운동을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와 히가시오사카조선 중급학교가 모범학교의 영예를 지닌데 이어 많은 학교들이 부문별 모범학교로 되었다.

학교교육사업이 개선됨으로써 각급 학교를 나온 많은 졸업생들이 애국사업에 나섰으며 총련의 여러 분야에서 애국위업을 꿋꿋이 이어나가게 되였다.



오사까-도쿄간 대행진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 학생들

새로 건설된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사

총련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합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11개 학교의 설치인가와 2개의 현교육회 법적인가를 획득하였다. 결과 총련산하 각급 학교 158개중에서 157개와 28개 현의 모든 교육회가 법적인가를 받게 되였다.

학교건설사업도 적극 추진되어 31개의 학교에서 교사와 문화회관, 체육관들을 련이어 일떠세웠다.

조청조직이 튼튼히 꾸려지고 민족교육사업이 개선 강화됨으로써 내외반동들의 모략선전과 민족동화책동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은 총련애국위업의 밀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3)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의 확대와 조국통일운동

조국왕래와 제3국애로의
려행의 자유 실현

1967년 12월 일본당국은 일방적으로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사업을 중단시켰다.

이것은 《한일조약》체결후 한층 강화된 총련탄압책동의 일환으로서 귀국사업에 관한 협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것이였다.

공화국 정부는 1969년 1월 28일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일본당국

의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고 귀국재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총련은 귀국재개를 요구하는 귀국재개요청운동을 대중적 운동으로 벌리는 한편 일본당국과 일본적십자사의 무성의한 태도를 시정시키기 위한 내외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1970년 12월 14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조일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다.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주장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71년 2월 5일 쌍방사이에 합의문건이 조인되고 3년 반동안이나 끊어졌던 귀국의 배길이 다시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랑에 의하여 1971년 5월부터 《만경봉》호가 귀국의 배길을 달리게 되자 이에 무한히 고무된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왕래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일본당국은 1965년 12월에 2명의 동포들에게 조국왕래를 허락한 후 여러가지 조건을 걸어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를 제한하고 있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한일 요청운동을 벌리는 한편 일본인민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속에서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 실현에 대한 지지, 협력을 받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그리하



귀국재개요청운동



위대한 주석님 탄생 60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여 1972년 4월 경애하는 주석님의 탄생 60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재입국허가를 쟁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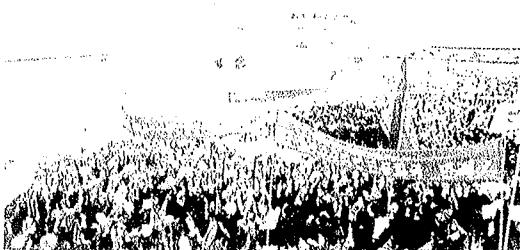
이를 계기로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사업은 보다 폭넓게 진행되었으며 조국방문을 신청하는 동포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동포들의 조국방문념원을 해아리시고 조국왕래사업을 보다 통이 크게 벌리며 1979년 4월에는 재일동포들의 단기조국방문을 실현시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1979년 8월부터 재일동포들의 단기조국방문사업이 실현되였으며 조국왕래사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제 1 차 단기조국방문단(1979. 8. 12)



《만경봉》호

1972년 6월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국제교육직업련맹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것을 계기로 1973년에 만도 6개 대표단 50명이 제3국에서 열린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일본에 돌아왔다.

조국왕래와 제3국에로의 려

행의 자유를 실현한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족권리옹호투쟁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귀중한 성과였다.

총련은 그밖에도 세금문제, 공영주택입거권 등을 비롯하여 재류권요청운동, 《오무라수용소》진상조사사업을 활발히 벌려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획득해 나갔다.

7. 4남북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조국의 통일을 칠망하며 일관하게 투쟁해온 재일동포들은 온 겨레와 더불어 7.4남북공동성명을 끝없는 감격과 흥분 속에 받아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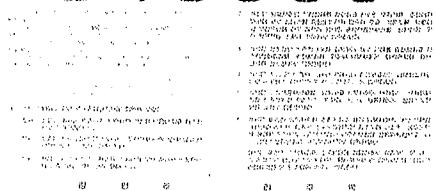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이러한 의사와 심정을 담아 즉시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여 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였으며 일본각지에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지방대회들을 일제히 진행하였다.

총련은 한편 새로운 환경에 맞게 민족단합운동을 강화할대 태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각계각층 동포들속에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해설 선전과 특히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제10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1973년)

남북공동성명



7.4남북공동성명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나갔다.

이리하여 1972년 7월 23일에 도쿄 大田지역의 총련과 《민단》산하 동포 2,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모임을 가지였으며 品川, 葛飾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공동모임들을 진행하였다. 8월 7일에는 조청과 《한청》의 공동 주최로 서일동포청년학생들의 중앙대회가 열리였으며 8월 15일에는 총련 도쿄도본부와 《민단》도쿄도본부가 공동으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도쿄동포들의 대회를 진행하였다. 총련과 《민단》사이의 공동모임은 두달도 못되는 사이에 350여개소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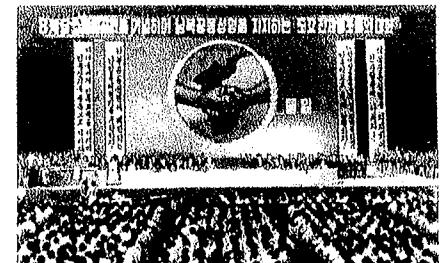
총련과 《민단》과의 공동모임, 공동행동은 그 규모와 심도에 있어서 8.15광복후 처음으로 되는 대민족단합운동이였다.

이러한 때 남조선에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서고 《민단》도 《유신민단》(1973. 3)으로 개편되었으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였다.

총련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해설하며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매국배족적 본질을 발가동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내 외해설선전활동과 시위투쟁을 조직전개해 나갔다.



조국통일 5대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재일동포들



총련 도쿄도본부와 《민단》도쿄도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도쿄동포들의 대회



서명운동을 벌리는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이 서명한 조선통일지지서명부

25만명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여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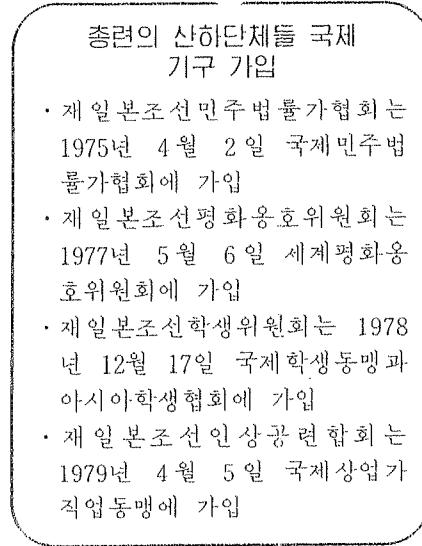
총련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는 한편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실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1976. 6.), 《주체사상국제연구소》(1978. 4.)가 무어졌으며 1978년 11월에는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 세계대회가 열리었다.

국제민주단체와의 사업도 추진되어 총련의 여러 단체들이 국제기구들에 가입하였다. 이처럼 총련은 1970년대에 민주주의적민족권리쟁취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활발히 벌임으로써 재일동포들의 권익옹호단체, 애국애족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갔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 세계대회

총련의 산하단체들 국제 기구 가입

- 재일본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1975년 4월 2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 가입
- 재일본조선평화옹호위원회는 1977년 5월 6일 세계평화옹호위원회에 가입
-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는 1978년 12월 17일 국제학생동맹과 아시아학생협회에 가입
- 재일본조선인상광련합회는 1979년 4월 5일 국제상업가직업동맹에 가입